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선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한국어 번역에 관한 대조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이 지 나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한국어 번역에 관한 대조 연구

이선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이 지 나

# 인 준 서

이지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음 두 은.....(인)

심 사 위 원 .....이 선 경.....(인)

심 사 위 원 .....박 혜 선.....(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단순미래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미래 표현 표지의 용법에 대한 대조 연구이다.

프랑스어의 단순미래는 미래를 나타내는 직설법 시제로, 시제적으로 단절을 나타내고 언술행위적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단순미래는 양적인 출현소를 구축하는 동시에 양태작용을 도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며 표지 '-겠-'과 '-르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의 하나이지 시제적 범주에 속하는 미래 시제 표지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한국어 표지는 없지만 '-겠-'과 '-르것-'이 갖는 '불확실성'과 '추정'의 가치를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의 틀로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비교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의 관점에서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한국어로 번역된 다양한 문헌에서 발췌한 용인된 언술의 분석을 통해 단순미래가 지닌 기능과 다양한 의미가치를 살펴보고, 단순미래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언어학적 표지들에 내재되어있는 언술행위적 작용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분석 예문을 발췌한 문헌으로는 소설, 신문기사, 역사서, 법조문, 일기예보를 채택하였다.

언술의 분석은 언술의 인칭유형에 따른 분류, 언술의 유형에 따른 분류, 문장 구조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문 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표지 '-겠-'과 '-르것-'은 그 자체로 근거지표로 작용할 수 없다. 프랑스어 단순미래는 독립적으로 한정작용을 받는 형태인 반면, 표지 '-겠-'과 '-르것-'은 시제형태소와 시간부사 같은 시제적 지표를 동반하여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둘째, 표

지 ‘-겠-’과 ‘-르것-’은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의 흔적으로 기능한다. 표지 ‘-겠-’과 ‘-르것-’은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상황적 근거 지표가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언술행위주체가 (p, p')의 가치에서 p를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언술행위주체가 자신의 언술에 대한 책임지기를 나타낸다. 셋째, 단순미래가 나타내는 양태적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르것-’이 인식론적 양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4
1.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 .....	4
1.1. 좌표결정작용 .....	4
1.2. 상호주체간의 관계 .....	5
III. 기존연구 .....	8
1. 프랑스어의 단순미래 .....	8
1.1. 단절 .....	8
1.2. 역사적 미래 .....	9
1.3. 확실성 영역과 불확실성 영역 .....	11
1.4. 책임지기작용 .....	12
1.5. 양태적 가치 .....	15
2. 한국어 표지 ‘-겠-’과 ‘-르것-’ .....	17
2.1. 표지 ‘-겠-’ .....	19
2.2. 표지 ‘-르것-’ .....	23
IV. 언술분석 .....	28
1. 인칭유형별 분석 .....	28
1.1. 1인칭 .....	28
1.2. 2인칭 .....	46

1.3. 3인칭 .....	55
2. 언술유형별 분석 .....	67
2.1. 소설 .....	67
2.2. 신문기사 .....	69
2.3. 역사서 .....	82
2.4. 법조문 .....	91
2.5. 일기예보 .....	100
3. 문장 구조별 분석 .....	101
3.1. Si p, q .....	102
3.2. Quand p, q .....	107
<b>V. 결론 .....</b>	<b>111</b>
참고문헌	
Résumé	

## 표 목 차

<표 1> 1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je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래 번역 양상 .....	29
<표 2>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nous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래 번역 양상 .....	41
<표 3>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tu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래 번역 양상 .....	46
<표 4>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vous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 래 번역 양상 .....	48
<표 5> 2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vous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 래 번역 양상 .....	54

## I. 서론

본 연구는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이 단순미래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미래 표현의 용법에 대한 대조 연구이다. 미래를 표현하는데 있어 프랑스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시제 구분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난다.

문법상의 시간적 대립관계는 전통문법이 희랍어나 라틴어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적 대립이 인식한데서 문법 범주로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시간적 대립이 있다는 것이 중국에는 세계 모든 언어에 이와 같은 삼분적 시제 체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 국내의 모든 문법서가 현재, 과거, 미래의 용어를 쓰며, 이 삼분시가 기본적 필수개념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설명이 언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sup>1)</sup>

이처럼 라틴어에서 유래된 프랑스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적 시제 체계를 한국어 문법 체계에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한 프랑스어에는 직설법의 범주에 속하는 시제인 단순미래가 존재하지만, 한국어 문법에는 미래 시제로 구분되는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관점으로 이 두 언어의 미래 표현을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틀로 제시한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은 모든 유형의 언술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자연어를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보편적인 언어활동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 Culioli (1982a:13-16)에 따르면 “언술행위<sup>1</sup>énonciation란 연산작용<sup>2</sup>opération의 흔적인 표지의 배열로 되어있는 언술을 생산하고 인지하는 행위”<sup>2)</sup>인데, 연산작용의

---

1) 남기심(1972:214-215)

2) 이선경(1994:162), 재인용

자취와 흔적은 각각의 자연어에서 달리 실현되지만, 연산작용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불변소이다. 언어활동을 지배하는 이 불변소를 도출하는 것이 언어학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미래 시제에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불변소가 있다고 보고,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가 나타나는 언술의 관찰을 통해 각각의 언술을 구성하고 있는 표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두 언어를 관통하는 불변소를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 *théorie des opérations énonciatives*의 관점에서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한국어로 번역된 다양한 문헌에서 발췌한 언술의 분석을 통해 단순미래가 지닌 기능과 다양한 의미가치를 살펴본다. 또한, 단순미래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지에 대한 분석을 재정의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한국어 미래 표현이 나타나는 언술을 구성하는 표지를 분석하고 한국어로 번역되는데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학적 표지들에 내재되어 있는 언술행위적 작용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언술을 구성하고 있는 표지의 연산작용, 즉 불변소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프랑스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쓰인 문헌에서 발췌한 언술을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어의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인 단순미래가 쓰인 언술과 전문 번역가에 의해 번역된 한국어 언술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프랑스어의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인 단순미래의 용법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불-한 번역 텍스트만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각 언어에서의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들의 용법이 문맥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서 가능한 많은 종류의 다양화된 유형의 문헌에서 언술을 발췌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학작품, 신문기사, 역사서, 법조문, 일기예보의 다양한 유형의 문헌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프랑스어의 미래시제인 단순미래와 한국어의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 ‘-겠-’과 ‘-르것’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해볼 것이다. 단순미래의 경우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을 따르고 있는 언어학자들에 의한 연구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겠다. 4장에서는 발췌한 용인된 언술들을 실제로 분석해볼 것이다. 분석의 틀은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을 따르고 있으며,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언술의 주어에 따른 구분, 언술 유형에 따른 구분, 문장 구조에 따른 구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단순미래가 어떠한 의미가치를 갖고 언술 내에서 어떠한 용법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한국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

본 논문은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 *théorie des opérations énonciatives* 을 분석의 틀로 제시하며,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한국어로 번역되는데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학적 지표들에 내재되어있는 언술행위적 작용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4장의 언술분석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되는 좌표결정작용과 상호주체간의 관계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sup>3)</sup>

#### 1.1. 좌표결정작용

좌표결정 *repérage*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연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술연관관계란 “말해질 수 있는 *dicible* 사고의 내용을 두 개의 논항 *argument*과 하나의 술어 *prédictat* 사이의 관계로 표상한 것”<sup>4)</sup>이다. 하나의 술어를 사이에 둔 두 개의 논항 중 하나를 출발 항 *terme de départ*을 선택하면 서술연관관계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처럼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연산작용을 좌표결정이라 한다.

좌표결정작용 *opération de repérage*은 서술연관관계가 언술 상황에 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술연관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언술 상황의 변수들은 근원 언술행위 상황인 *Sit<sub>0</sub>*, 실제적인 발화 상황인 *Sit<sub>1</sub>*, 서술연관관계에 의해 지시된 사건의 상황인 *Sit<sub>2</sub>*로 구성되고, 각각의 언술 상황(*Sit*)은 언술행위

---

3) 본 장에서 소개하는 언술행위이론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cf. 이선경(1994), 「필리올리의 좌표결정작용이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p.159-209.

4) 이선경(1994:175)

주체(S)와 언술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의 점(T)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sup> 서술연관관계가 위의 변수들에 의해 한정작용을 받을 때 ‘좌표결정 되다 être repéré’라고 표현한다. 어떠한 대상 X, Y에 대해 ‘X가 Y에 의해 좌표결정 되었다’는 것은 X가 Y라는 대상에 근거지표를 둔 한정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Y는 기준이 되는 근거지표 repère로, X는 한정작용을 받는 지표 repéré로 기능한다. X가 Y에 좌표결정되면 좌표결정작용에 의해 X에 지시적 가치가 부여된다.

J. -J. Franckel(1986b:46)에 따르면 좌표결정작용은 두 개의 작용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위치결정작용 localisation이다. 이는 언술행위가 실제로 일어나는 시·공간의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간의 집합에서 사행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유효화작용 validation으로, 언술행위주체의 원점이 언술행위를 통해서 서술연관관계가 유효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곧 시간 밖의 차원에서 사행의 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화작용은 언술행위 주체의 책임지기 prise en charge와 관련이 있다. 유효화작용과 책임지기의 개념은 3장에서 단순미래를 살펴볼 때 다시 다룰 것이다.

## 1.2. 상호주체간의 관계

상호주체간의 관계 relation intersubjective를 설명하기에 앞서 ‘양태’의 개념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Grévisse에 따르면 양태 modalité<sup>6)</sup>란 “화자

5) A. Culioli는 언술행위 상황을 세 가지 부류의 변수로 세분화한다. 근원 언술행위주체 sujet énonciateur origine와 근원 언술행위순간 moment de l'énonciation origine로 구성된 근원 언술상황 Sit<sub>0</sub>(S<sub>0</sub>, T<sub>0</sub>)과 발화행위주체 sujet de locution와 발화행위순간 moment de locution으로 구성된 실제적인 발화상황 Sit<sub>1</sub>(S<sub>1</sub>, T<sub>1</sub>), 그리고 서술연관관계에 의해 지시된 사건의 주체 sujet de l'événement와 사건의 순간 moment de l'événement으로 구성된 사건의 상황 Sit<sub>2</sub>(S<sub>2</sub>, T<sub>2</sub>)의 언술행위 조직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류의 매개변수들의 좌표결정작용에 의해 언술들이 서로 다른 양태적, 시상적 지시가치를 갖게 된다.(이선경, 1994:177, 재인용)

6) Modalité는 ‘양상, 서법, 양태’ 등으로 번역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양태’로 대표하여 기

가 자신의 언술에 대해 갖는 태도와 동사를 통해 표현된 행위를 간주하는 여러 방법을 나타내는 것”<sup>7)</sup>이다. 양태는 언술의 명제적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대한 표현으로 정의된다.<sup>8)</sup> 언어학에서 매우 다양한 양태의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A. Culioli가 나타낸 양태 이론만을 살펴보겠다. A. Culioli는 양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양태는 서술된 렉시스(lexis<sup>9)</sup>의 언술행위 한정작용détermination énonciative이며, 이것에 의해서 언술행위주체는 서술할 것에 지시 가치valeur référentielle를 나타낸다.<sup>10)</sup>

A. Culioli는 네 가지 양태 유형을 제시한다. 양태 1은 기본적인 양태 modalité fondamentale이다. 이는 언술행위주체가 언술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로 단언, 의문, 명령 등으로 제시된다. 양태 2는 사건의 양태 modalité de l'événement이다. 언술의 사건이나 내용에 대한 언술행위주체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이다.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필연성 등이 양태 2에 속한다. 양태 3은 평가적 양태 modalité appréciative이다. 이는 언술의 사건이나 내용에 대한 언술행위주체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태 4는 상호 주체 간 관계 relation inter-subjective의 양태로 명령, 제안, 소망 등의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 co-énonciateur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나타내는 양태를 가리킨다.<sup>11)</sup> A. Culioli는 나아가 상위 언어 표상으로 각각의 양태 유형을 나타내었다.

---

술하고자 한다.

7) Grévisse(1980:708-709)

8) 이선경 (2001:273)

9) “개념체의 선택과 결합을 조직하고 지시가치valeur référentielle를 구축하는 연산작용을 추출할 수 있는 원초적 관계를 이루는 개념체 영역이 서술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작용소 opérateur의 도움과 도입연산작용instanciation에 의해서 렉시스의 도식에 들어가 렉시스를 얻게 된다. 특정한 언술상황 안에서 그 근본적인 지위가 나타나고 있다. 렉시스는 최초의 서술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서술연관관계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의 다발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형식화 한 것이다.” (이선경, 1994:169-173, 재인용)

10) A. Culioli(1985:80-86)

11) 이선경(2001:279-280)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é은 앞서 언급한 A.Culioli가 구분한 양태의 4가지 분류 중 하나로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의 사행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서술연관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2)</sup>. 첫 번째는 공언술행위주체 없이 언술행위주체가 행하는 언술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는 사행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언술행위주체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의지나 소원의 가치를 갖는다. 두 번째는 두 대화자 간에 추상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 사이의 동일화작용으로 인해 제안의 가치가 나타난다. 마지막은 언술행위주체의 주관성이 공언술행위주체에게 행위를 가하는 상호관계를 갖는 경우인데, 이때 나타나는 가치는 명령의 가치이다. 이처럼 상호주관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태적 가치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12) A. Culioli(1985:94)

### III. 기존연구

#### 1. 프랑스어의 단순미래

‘미래’라는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언술행위 순간 이후의 순간에 사행을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 문법에서 미래를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난다. 현재, 양태동사 *devoir*, 근접미래 또는 우연적 미래 *futur périphrastique*라고도 불리는 ‘*aller+inf*’형태 그리고 단순미래가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된다. 그 중 단순미래는 프랑스어 미래 표현의 가장 대표적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을 따르는 언어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단순미래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단순미래의 ‘양태적 가치’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1.1. 단절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시제적으로 좌표결정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언술행위상황에 대한 시제적 단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C. Vet(1985:49)은 단순미래와 근접미래(*aller+inf*)의 용법을 구분하는데 있어 근접미래는 언술행위 세계에 속하고 단순미래는 언술행위 세계와 단절된 담화 세계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단순미래는 언술행위 세계와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사가 지시적 성질을 지니는 경우, 단순미래로 나타나는 문장의 사태가 언술행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선행사가 비 지시적인 성질을 지니는 경우 언술행위 세계와 관계는 단절된다. 단순미래로 쓰인 문

장 속의 사태는 담화 세계에 속한다.

반면, J. -J. Franckel(1984:66)은 위치결정소localisateur와 근거지표repère의 기능으로 두 시제를 구분하였는데, 근접미래는 근원 언술행위 순간  $T_0$ 에 위치결정된 것으로 보고, 단순미래는  $T_0$ 와 단절된 새로운 근거지표에 위치결정된 것으로 보았다. 단순미래는 가상의 근거지표를 내포하고 있다.

단순미래는 근원 언술행위 순간  $T_0$ 에 대해 단절되며 아오리스띠끄 aoristique 속성에 상응한다.

위의 두 언어학자의 정의에서 단순미래가 언술행위상황에 대한 시제적 단절을 구축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단순미래는 단순과거처럼 아오리스띠끄 aoristique<sup>13)</sup> 관계를 구축한다. 이는 단순미래, 단순과거가 구성하는 언술행위상황이 단절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4)</sup>  $T_0$ 가 기준점이 되지 않고,  $T_0$ 와 단절된 근거지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언술행위 상황에 대한 시제적 단절을 나타내며 사행들 간의 한정작용이 나타난다.

## 1.2. 역사적 미래

과거의 사건을 서술할 때 단순미래가 사용되기도 한다. P. Imbs(1960:46 -

13) 아오리스띠끄는 본래 그리스어의 한 시제로, 진행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의 가치를 갖는다. H. Weinrich(1973)는 언술의 유형을 설명commentaire과 서술(이야기)récit로 나누고 설명은 화자와 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화한 것으로, 서술(이야기)은 상황적 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서술(이야기)에 불어의 반과거와 단순과거가 쓰여 무관점 perspective zéro의 양태적 관점을 나타낸다. 이 두 시제는 청자를 사건으로 끌고 들어가 이야기récit에 입체감을 주는 효과를 준다. E. Benvenistes(1966)는 언술 유형을 담화discours와 역사적 이야기récit historique로 나누었다. 역사적 이야기에 아오리스띠끄 aoriste인 단순과거와 전과거가 쓰이면 화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은 듯이 과거 순간의 사건을 표현한다. 담화에는 아오리스띠끄를 제외한 시제만 사용된다. A. Culioli(1980)는 언술장면espace énonciatif과 아오리스띠끄를 제시한다. 언술장면은 언술이 기본 언술행위 순간에 지표를 두는 것을 말하고, 아오리스띠끄는 두 언술행위 상황이 단절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3인칭, 단순과거, 반과거, 복합과거, 현재, 미래를 아오리스띠끄의 특성을 가진 표지로 제시한다. A. Culioli는 아오리스띠끄 속성을 <Sitn(Sn, Tn)@ Sitm(Sm, Tm)> 이라는 좌표결정 작용소로 정의한다.

14) A. Culioli(1980:186) 참조 (이선경, 2013:223 재인용)

47)는 이를 “역사가의 미래” 또는 “예측의 미래”라고 나타내었고, 역사가의 미래는 단순미래의 시간적 용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가의 미래는 역사가들의 서술한 순간에는 완전히 지나간 사건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래이다. 이는 사건들 간의 연결을 나타내고, 이야기의 전개에서 단절을 야기한다. 그리고 사실상 자율적인 기간과 문맥의 독립성을 상기하도록 하는 능력을 형성한다.<sup>15)</sup>

상황이 과거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화자에 의해 과거 상황에서 가상의 시간적 근거지표에 대한 미래처럼 재구성될 때 단순미래가 나타난다. 이를 언어학자 L. Cledat(1928 T40:140-143)는 “가상의 이동Transport fictif”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사건들 속으로 이동하여 서술자에게 있어서는 실제 미래이다”<sup>16)</sup>라고 설명한다. 이 때 서술자는 가상의 상황에 놓인 채 좌표결정작용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서술자의 언술행위적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즉, 언술행위주체에 의한 과거의 재해석이 수반될 수 있는데 이를 “회상Rétrospection”이라고 명명한다. E. Benveniste(1966:241)은 “작가는 역사가의 의도에 충실해야 하고, 사건의 이야기와 무관한 어떤 것도(담화, 견해, 비교) 금해야 한다.”고 역사적 언술행위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언술행위주체의 모든 회상적 판단을 배재하였다. 하지만 A. Celle(1997:180)은 “이야기를 발화 흔적이 지워진 언술행위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화자를 ‘이상적인 연대기 작가’로 만들려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전기, 역사서,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 속에서 나타나는 단순미래의 좌표결정에 의해 표현되는 ‘회고’는 프랑스어 단순미래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어에서 회고는 자주 나타나고, 특히 지나간 사건들에 명시적

---

15) P. Imbs(1960:46)

16) L. Cledat(1928 T40:141)

으로 위치하는 시제의 지시어와 함께 나타난다.”<sup>17)</sup>

### 1.3. 확실성 영역과 불확실성 영역

J. -J. Franckel(1984:66)은 “단순미래는 불확실성의 영역에 속하고 비 단언적이다”라고 설명한다. 단순미래가 나타난 언술에서 서술연관관계가 실제로 시공간적으로 한정작용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J. -J. Franckel의 이러한 주장은 언어외적 사실과 언어학적 사실을 분리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언어외적인 실제 미래와 언어학적인 단순미래를 분리하려는 노력은 많은 언어학자들로부터 이어져왔다. H. Weinrich(1964[1973]:74)는 실제 미래와 단순한 가능성의 미래(양태적 미래)를 구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예상된 정보는 정보가 정보 실현의 순간보다 미리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 또는 일어나는 중이라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R. Martin(1981:82)은 “단순미래는 확실성을 향해 나아가는 생각의 움직임의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G. Guillaume(1951:126)은 단순미래를 “잠재성의 실제화”라고 나타내며 “단순미래의 특수성은 내재된 가정의 확실한 부분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C. Vet(1985:49)는 언어외적인 사실인 미래에 사행이 실현되는 것과 언어적인 사실인 언술행위주체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고 고려하는 방법을 분리시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단순미래는 화자가 실제처럼 고려하는 세계(담화 세계)를 가리킨다. 단순미래로 나타난 문장을 사용하면서 화자는 세계의 일부분을 묘사한다. 세계는 화자가 말하는 순간  $T_0$ 에 있다는 인지 속에서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미래는 직설법이다. 단순미래가 양태를 표

---

17) A. Celle(1997:180-181)

현한다면, 화자는 사태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 경우에는 단순미래가 확실성의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만약 미래에 사태가 실현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양태적 표현과 단순미래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미래는 다른 시제와 다르지 않다.

A. Culioli(1978b[1990]:146-147)도 “(p, p’)의 가치 중 p를 선택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p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단순미래로 나타난 사행의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화자가 사행이 나타내는 담화세계를 실제적인 것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화자가 앞으로 올 세계, 즉 사행이 나타내는 담화세계를 어떻게 고려하고 예측하는지에 있다.<sup>18)</sup> 화자는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미래의 의미가치를 화자의 책임지기작용과 관련지어 살펴봐야 할 것이다.

#### 1.4. 책임지기작용

A. Culioli는 단순미래가 내포하고 있는 목표visée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목표는 서술연관관계가 개념적으로 구축된 결과물로, 유효한 것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성을 고려하는 한정작용이다. 서술연관관계를 겨냥한다는 것은 언술행위주체가 (p, p’)의 가치 중 하나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9)</sup>

(p, p’)의 가치 선택에 관련하여 J. -J. Franckel(1984:6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8) 이선경(2013:227)

19) A. Culioli(1990, PLE1 : 135-155) (이선경, 2013:228, 재인용)

단순미래는 본질적으로  $T_0$ 에 사행의 긍정적 형태인  $p$ 와 부정적 형태인  $p'$ 을 도입한다.  $T_0$ 에 대해 단절된 위치결정소  $T_1$ 에서 두 가치 중 하나의 가치가 선택된다.

언술행위주체는 개념체 영역의 공간  $(p, p')$ 의 가능성 있는 가치의 집합을 주행한 후  $p'$ 을 제외하지 않고  $p$ 의 가치를 선택할 뿐이다.<sup>20)</sup> 이처럼 언술행위주체가  $p$ 와  $p'$ 의 가치 중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책임지기 *prise en charge énonciative*라는 작용이 나타난다. 책임지기라는 개념은 A. Culioli(1971:4031)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sup>21)</sup>

모든 언술행위에는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 *prise en charge*가 가정되어 있다.<sup>22)</sup>

A. Culioli(1971:4031)는 이어 책임지기가 나타는데 필요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언술행위에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가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을 내포한다. 모든 언술에는 Paul, gâteau, manger 등과 같은 용어의 총체와 용어들 간의 관계, 규칙에 따라 복잡한 방법으로 용어들을 결합하는 도식이 존재하고, 용어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 도식은 명제 *proposition*나 진술 *dictum*에 해당한다.

용어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양태 *modalité*가 나타난다. 용어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은, 즉 추상적인 실체로서 부정되지도 긍정되지도 않은 상태를 렉시스 *lexis*라 부르는데 A. Culioli(1971)는 “모든 언술행위는 렉시스를

---

20) 이선경(2013:224)

21) A. Culioli의 책임지기 *prise en charge*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참고 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cf. 이선경(2014), 「언술행위 연산작용으로 본 표지 ‘-겠-’」,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50집, pp.189-191

22) 이선경(2014:190), 재인용

포함하고 있는 서술연관관계에 대해 취해진 태도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언술행위가 일어날 때 언술행위주체의 태도가 언술에 표현되거나 언술행위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양태화작용modalisation이라고 부른다.

양태화작용modalisation이 없는 언술행위는 없다.<sup>23)</sup>

책임지기의 개념은 양태와 양태화작용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책임지기 작용에는 단언assertion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A. Culioli는 단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은 명제(이것이 긍정, 부정, 의문, 명령이든지 간에)를 발화하며, 모든 단언은 언술행위주체énonciateur와 언술을 가정한다.<sup>24)</sup>

단언assertion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을 지는 사람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말하는 내용에 보증을 서고 모든 것과 대항하여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화자의 변수instance de locution만 있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단언이 아니다. 마치 보증인이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에 책임지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sup>25)</sup>

단언을 할 때 언술행위주체는 말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참여하고, 말한 내용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sup>26)</sup>

언술행위주체는 언술행위에 참여하며 자신의 언술에 대한 책임지기를 한다. 단언이 나타난다는 것은 언술행위주체가 “참’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

23) A. Culioli(1971) (이선경, 2014:190, 재인용)

24) A. Culioli(1968)

25) A. Culioli(1985) (이선경, 2014:190, 재인용)

26) A. Culioli(2005:166-167)

것”<sup>27)</sup>, 즉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미래에 책임지기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언술행위주체가 언술의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된 것처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단언에 내재되어있는 유효화작용-validation이 나타나는 것이다. 유효화작용이란 언술행위주체가 적합하다고 고려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작용이며 언술행위주체는 서술연관관계에 유효화작용을 가하면서 가치평가évaluation를 부여한다.<sup>28)</sup> A. Culioli(1985)에 따르면 단순미래는 “유효화 된validée 것이 아닌, 유효화 될validable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단순미래는 메타언어적 차원에서 진실vérité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즉 비록 유효화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경우에 언술행위주체가 유효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서술연관관계에 놓인다.

### 1.5. 양태적 가치

단순미래의 양태적 가치valeur modalité가 시간적 가치에서 파생된 것인지, 본래 단순미래가 갖고 있는 성질인 것인지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미래가 양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사행이 미래로 나타나있다는 것은 아직 위치 결정되지 않은 영역을 나타내므로 주관적인 영역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D. Maingueneau(1994:102-105)는 미래 언술에 대하여, 양태적인 발화 내적인 힘force illocutoire이 존재하고, 그 해석은 언술의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1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je와 단순미래가 함께 쓰이는 경우는 약속의 가치가 나타난다. 언술행위주체가 자신의 실행 의도를 알림으로써 이를 실행해야할 도덕적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tu가 주어로 사용된 단순미래 언술에서는 명령의 가치 또

---

27) A. Culioli(1985)

28) 이선경(2014:191)

는 예언의 가치가 나타난다. 언술행위주체는 공언술행위주체에게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게끔 명령하기도하고 언술행위주체가 지닌 지식을 바탕으로 공언술행위주체의 행위를 예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태 가치는 상호주체간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또한 비인칭 주어와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문맥에 따라서 필연성nécessite, 개연성probabilité, 가능성possibilité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한다.<sup>29)</sup>

단순미래가 쓰인 언술에서 나타나는 양태로는 인식론적 양태modalité épistémique와 의무의 양태modalité déontique가 있다. 인식론적 양태란 추정,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이다. 앞서 살펴본 A. Culioli가 제시한 양태의 4개 유형 중 양태 2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L. Stage(2002)는 “인식론적 양태란 과거 또는 현재 사건에 수반되는 언술의 명제적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가정은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인식론적 양태는 ‘앎의 영역domaine du savoir’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인식론적 양태는 화자의 지식이나 가정의 근거를 지표로 하는 추측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태조동사 devoir나 sûrement, probablement, sans doute와 같은 인식론적 부사를 문맥에 바꿔 넣어보았을 때 문장이 성립한다면 인식론적 양태가 나타나는 문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단순미래의 인식론적 양태는 한정적 조건에서 나타난다. 3인칭 주어와 동사 être가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반면, 의무의 양태는 ‘의지의 영역domaine du vouloir’을 나타내며, 언술행위주체의 의지가 공언술행위주체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명령형, 양태조동사 devoir와 pouvoir, 미래 또는 현재를 통해 나타난다.<sup>30)</sup> Riegel et alii은 “명령이 미래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미래는 단순한 의무부터 권고, 명령 등과 같은 강제성을 지닌 다양한 뉘앙스를 나타낸다.”<sup>31)</sup>고 설

---

29) D. Maingueneau(1994:102-105)

30) L. Stage(2002:44-66)

31) Riegel et alii(1994:313)

명한다. 또한 미래에 내재되어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명령법보다 덜 강제적이고, 그 강제성은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문법에서는 “미래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명령은 2인칭으로 나타난다”<sup>32)</sup>고 규정하지만 3인칭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법조문에서 3인칭 주어와 함께 양태적 미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미래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단순미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단순미래로 표현된 언술은 언술행위 상황에 대한 시제적 단절을 나타낸다.
2. 단순미래로 표현된 언술은 실제로 시공간적으로 한정작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화자가 사행이 나타내는 담화세계를 실제적인 것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3. 언술행위주체는 (p, p')의 가능성 있는 가치의 집합을 주행한 후 p'을 제외하지 않고 p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4. 단순미래의 시제적 가치가 단순미래의 우선적 가치로 고려되지만 양태적 가치 또한 지닌다. 단순미래는 특히 인식론적 양태와 의무의 양태를 나타낸다.

## 2. 한국어 표지 ‘-겠-’과 ‘-르것-’

한국어 문법 범주에 미래 시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남기심(1972)은 서양 문법의 일반적인 문법 범주인 과거-현재-미래가 우리말 문법에 그대로 도입되는 과정

---

32) *Grammaire française*, Togeby, 1982, 1021

에서 나타난 오류라고 주장한다. 흔히 학교 문법에서 확실하지 않거나 미확  
인된 사건의 ‘추측’을 나타내는 ‘-겠-’을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인식하여  
사용한 것에서 문법 범주 혼용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고광모(2002)는 ‘-겠-’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데 항상 쓰이는 것이 아니  
므로 ‘-겠-’을 미래 시제 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박근호(1990)에 따  
르면 ‘-겠-’은 과거, 현재, 미래 표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과거 형태소  
‘-었-’과 결합하여 과거를 나타낼 수 있다. 현재와 미래는 따로 시제 형태소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제 형태소 없이 ‘-겠-’ 단독으로 사용하여 현재  
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서정수(1977)는 ‘-겠-’은 시제로서의 의미는 없  
고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소나 시간부사와 같은 다른 문장성분과 결합할 때  
비로소 시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 (1) a. 내일도 날씨가 춥겠습니다.<sup>33)</sup>
- b. 현재 온도가 30°C는 되겠다.<sup>34)</sup>
- c. 진해에는 벚꽃이 오래 전에 피었겠다.<sup>35)</sup>

예문 (1a)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내일’과 결합하여 미래 날씨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예문 (1b)는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현재’와 결합  
하여 현재 날씨에 대한 추측을, 예문 (1c)는 과거 형태소 ‘-었-’과 과거를 나  
타내는 표현 ‘오래 전에’와 결합하여 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  
다. 이처럼 ‘-겠-’을 미래 시제 표지의 어미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 (2) a. 나는 꼭 미국 유학을 가겠다.
- b. 그런 문제는 나도 풀겠다.
- c. 열이 많이 나니 아무래도 병원에 가 봐야겠구나.<sup>36)</sup>

---

33) 서정수(1977:69)

34) 박근호(1990:6)

35) 서정수(1977:71)

36) 박근호(1990:17)

예문 (2)의 (2a), (2b), (2c)는 각각 의도, 가능, 추측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겠-’을 ‘불확실한 혹은 미확인된 명제내용에 대한 의도, 가능, 추정 등을 표현하는 양태소’<sup>37)</sup>라 보는 견해도 있다.<sup>38)</sup>

‘-르것-’<sup>39)</sup>은 형태상으로 관형사형 어미 ‘(으)르’에 의존명사 ‘것’이 연결된 구문론적 구성이라는 이유로 초기 국어학자들은 문법 범주 형태로 고려하지 않았다. ‘-르것-’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홍기문이 “미연 또는 미지의 추측을 표한다”라고 ‘-르것-’을 미래 표현의 한 방식으로 나타내면서 부터이다. 그 후 S. Martin(1974:35)과 나진석(1953:8)으로 이어져 미래성을 갖는 표지로서 ‘-겠-’과 함께 ‘-르것-’이 연구되었다. 서정수(1977)는 ‘-르것-’이 미연의 사물, 추정, 의도, 지령, 풀이 기능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것-’ 또한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시제의 표지로는 고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비록 ‘-겠-’과 ‘-르것-’을 단순미래에 상응하는 한국어 미래 시제 표지로서 보긴 어렵지만, 이 두 표지가 한국어 문법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어미임은 부정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표지가 미래성의 의미를 지닐 때 어떠한 의미가치를 갖는지 기존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 2.1. 표지 ‘-겠-’

표지 ‘-겠-’은 많은 국어학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왔다. 특히 ‘-겠-’을 시제의 범주로 볼 것인지, 양태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어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전<sup>40)</sup>과 한국어 교재들에

37) *ibid.*

38) 서정수(1977), 박근호(1990), 김혜정(1994)

39) ‘-르것-’은 사실상 ‘이(다)’까지 연결된 형태인 ‘-르것이-’로 표현해야 하지만 다양한 한국어 관련 논문에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40) 국립국어원 사전에 따르면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다.(2015

‘-겠-’이 ‘미래’의 의미를 갖는 어미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발화에서 ‘-겠-’이 쓰이기 때문이다. 주시경(1910)은 ‘-겠-’을 ‘을 적’을 나타내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로 보았다. 박승빈(1935), 최현배(1937)도 ‘-겠-’을 미래 시제 범주에 속하는 표지로 보았다. 하지만 남기심(1971)은 이러한 분류가 서양 문법 범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라 보았고, ‘-겠-’은 서법의 표지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나진석(1971), 장경희(1985), 박재연(2004) 또한 ‘-겠-’을 양태 범주에 속하는 표지로서 고려하였다. ‘-겠-’을 비록 시제 표지로 고려할 순 없을지라도,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임동훈(2001:117)과 박재연(2004:85)은 ‘-겠-’이 양태소이기는 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최정진(2012:95)은 ‘-겠-’이 나타나는 발화 내용 상황이 ‘미래’ 상황을 나타내므로 의미 기능을 ‘미래’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의 의미 외에 ‘추측’<sup>41)</sup>, ‘의도’<sup>42)</sup>, ‘가능’<sup>43)</sup>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밝혀져왔다.<sup>44)</sup> 그 중 ‘추측’과 ‘의도’의 의미를 ‘-겠-’의 중심적인 의미로 보는 연구<sup>45)</sup>가 있는 반면, ‘미래’, ‘추측’, ‘의도’, ‘가능’ 등의 의미 각각을 인정하는 연구도 있다. 또는 ‘추측’과 ‘의도’ 두 의미를 종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sup>46)</sup>

‘추측’의 의미를 갖는 ‘-겠-’의 쓰임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겠-’은 앞서 언급한 예문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시제 구분 없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sup>47)</sup> 또한 모든 인칭과 사용 가능하다<sup>48)</sup>, 서술

년 9월 30일 검색,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41) 최현배(1971), 나진석(1971), 서정수(1977), 이기용(1978) 등

42) 서정수(1977), 박영순(1985) 등

43) 최현배(1971), 임흥빈(2001) 등

44) 여러 국어학자들에 의해 ‘추량’(서정수 1977), ‘추정’(이기용 1978, 신창순 1975), ‘추단’(나진석 1971), ‘추측’(이정민 1973)등으로 기술된 것은 ‘추정’으로, ‘의지’(김석득 1974), ‘의도’(서정수 1977)로 기술된 것은 ‘의도’로 대표하여 기술한다.

45) 서정수(1977)

46) 이기용(1978), 임흥빈(1998), 장경희(1998)

47) 서정수(1977), 박근호(1990)

문에서는 화자 자신, 의문문에서는 청자가 관여되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난다.<sup>49)</sup>

- (3) a. 나는 내일쯤에야 보고서 작성을 마치겠다.
- b. 너는 내일 고향에 가겠구나.
- c. 내년쯤 인공위성이 발사되겠다.<sup>50)</sup>

예문 (3a)는 주어가 1인칭, 예문 (3b)는 주어가 2인칭, 예문 (3c)는 주어가 3인칭으로, ‘추측’의 의미를 갖는 ‘-겠-’이 인칭 유형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자 자신의 행동에 관한 내용일 때는 예문 (4)와 같이 ‘추측’보다는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sup>51)</sup>

- (4) 나는 내일 대청소를 하겠다.<sup>52)</sup>

함께 나타나는 사행에도 큰 제약은 없다. 다만 서술문에서 1인칭, 의문문에서 2인칭으로 쓰였을 때, 상태 동사와 같은 비 동작성을 갖는 동사가 동반된다.<sup>53)</sup>

- (5) a. 나는 내일은 한가하겠다.<sup>54)</sup>
- b. 너도 내일이면 한가하겠지?

임동훈(2001)은 서술어가 나타나는 행위가 주어의 영향권에 있지 못하는 경우나 동사가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어색하게 쓰인다고 설명한다.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보다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미래 시간의 경우에만 ‘의도’의 의미가 나타난다.<sup>55)</sup>

---

48) 서정수(1977), 이병기(1997)  
49) 김혜정(1994)  
50) 박근호(1990:21-25)  
51) 서정수(1978)  
52) 박근호(1990:26)  
53) 서정수(1977), 김혜정(1994)  
54) 박근호(1990:21)  
55) 서정수(1977), 박근호(1990)

- (6) a. \*나는 어제 은행에 갔었겠다.
- b. \*나는 요즈음 공부를 하겠다.
- c. 나는 내일 대청소를 하겠다.<sup>56)</sup>

예문 (6)의 (6a), (6b)는 각각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함께 ‘-겠-’이 사용되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의도’라는 개념이 지닌 특징과 관련된 것이다. ‘의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동작을 마음속에 결정하여 이후에 실현될 것을 기억하는 것”<sup>57)</sup>으로 미래에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겠-’은 인칭과 사행의 유형도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 (7) a. 내가 가겠다.
- b. 네가 가겠니?<sup>58)</sup>

예문 (7)에서와 같이 서술문에서는 1인칭, 의문문에서는 2인칭과 함께 나타나고<sup>59)</sup> 동작주의 자발성이 나타날 때<sup>60)</sup> ‘의도’의 의미가 나타난다. 함께 나타나는 사행의 유형에 대해서 서정수(1977)는 행동성 동사가, 김혜정(1994)은 동작 동사가 화자의 행동을 서술하는 경우로 보았다. 임홍빈(1980)은 “화자의 인식 상태에 따라 문제의 일이나 상태를 자기지배적인 것 (self-controllable)<sup>61)</sup>으로 선택할 때” ‘의도’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 (8) a. 나는 앞으로 하느님을 믿겠다.
- b.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하겠다.<sup>62)</sup>

---

56) 박근호(1990:26)

57) 서정수(1977)

58) 김혜정(1994:63)

59) 서정수(1977), 박근호(1990), 이병기(1997), 김혜정(1994)

60) 임동훈(2001)

61) 임홍빈(1980)은 Kuno(1973)의 개념을 빌려 self-controllabl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62) 임홍빈(1980:160-161)

예문 (8)의 (8a), (8b)에 쓰인 사형 ‘믿다’, ‘용서하다’는 행동성 동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겠-’이 ‘의도’의 의미로 쓰였다. 화자가 사형을 자기지배적인 것으로 선택하여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학자들마다 용어와 표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만 동작성 사형과 동반하여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가 화자의 지배권에 있는 경우에 ‘의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겠-’이 ‘미래’, ‘추측’, ‘의도’ 등의 의미 기능을 갖지만, 모든 언술에서 ‘미래’, ‘추측’, ‘의도’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김차균(1981)은 ‘불확실’이 ‘-겠-’의 원초적 의미라고 주장한다. ‘미래’, ‘추측’, ‘의도’가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겠-’의 의미 기능을 어느 한 가지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이 ‘불확실성’이라 나타내기도 하였다.

## 2.2. 표지 ‘-르것-’

표지 ‘-르것-’은 구문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자들마다 통사 구성의 성분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함에 따라 그 의미 또한 차이가 나타난다. 서정수(1978)는 관형사형 어미 ‘(으)르’에 의존명사 ‘것’이 연결된 구문론적 구성으로 본래 뜻 외에 여러 파생적 의미(미연의 사물, 추측, 의도, 지령, 풀이 기능)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차균(1981)에서는 ‘을’이 사용되는 발화를 근거로 ‘-겠-’과의 의미 차이가 문법적인 구조의 차이에 불과하고, ‘-겠-’과 ‘을’을 동일 형태소에 포함시켜 그 의미를 불확실(미확성)이라고 하였다. 성광수(1984)는 ‘-르것-’의 구조를 ‘르+것+이’로 분석하여, ‘르’이 갖는 부정법에서 추측의 의미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 ‘르(추측)+것(상황적요소)+이(지정)’과 같은 구조적 결합에서 ‘추정’의 의미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sup>63)</sup>

63) 성광수(1984)는 ‘추측’과 ‘추정’을 구분하고 있는데, ‘추정’은 ‘추측’ 외에 ‘것이’에서 비

‘-르것-’에 대한 연구는 ‘추측’의 의미를 갖는 표지로서 고려되어 동일한 의미 가치를 갖는 ‘-겠-’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주로 이루어져왔다.<sup>64)</sup> 서정수(1978)는 ‘추측’의 의미를 갖는 ‘-르것-’은 하나의 의미 단위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르것-’은 ‘-겠-’보다 인칭이나 사행의 유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9) a.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다.

b. 나는 내일 떠나겠다.<sup>65)</sup>

(10) a. (이 약을 먹으면) 너는 잠을 잘 것이다.

b. \*(이 약을 먹으면) 너는 잠을 자겠다.

(11) a. (내가 그를 치면) 그가 나를 칠 것이다.

b. \*(내가 그를 치면) 그가 나를 치겠다.

예문 (9)~(11)에서 ‘-르것-’은 인칭과 사행의 유형에 관계없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예문 (9b)와 같이 1인칭 주어와 ‘-겠-’이 함께 쓰이는 경우는 ‘추측’의 의미보다는 ‘의도’의 의미가 나타난다. 또한 예문 (10)~(11)과 같이 화자 이외의 행동자가 등장할 경우 일반적으로 ‘-겠-’은 쓰지 않는다.

‘추측’의 의미를 갖는 ‘-르것-’과 ‘-겠-’에 대한 논의로 추측 강도의 차이로 두 표지의 차이를 구분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기용(1978)은 ‘-겠-’을 확실한 추측으로 보았다.

(12) a. 그는 꼭 지옥에 가겠다.

b. 그는 꼭 지옥에 갈 것이다.

---

릇된 ‘단정’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64) 이기용(1978), 서정수(1978), 성광수(1984), 고창운(1991), 이남순(1995), 염재일(2005)

65) 서정수(1978:97)

(13) a. 아마 방 선생은 총각일 것이다.

b. \*아마 방 선생은 총각이겠다.<sup>66)</sup>

함께 쓰이는 부사어를 통해 ‘-겠-’이 ‘아마’와는 함께 쓰이지 못하므로 ‘-르것-’보다 강한 추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반면, 이정민(1973)은 ‘-르것-’이 화자의 강한 내적 추측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서정수(1978) 또한 ‘-르것-’이 ‘-겠-’에 비해 더 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본다.

서정수(1978)는 추측 근거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기준으로 두 표지를 분석하였는데, ‘-겠-’은 주관적 추측을, ‘-르것-’은 객관적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르것-’은 객관적 근거와 함께 나타나 객관성이 강한 추측 표현이 가능하고 따라서 제 3자의 의도나 행동에 관한 추측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성광수(1984)도 추측에 대한 화자의 단정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겠-’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르것-’이 쓰인다고 보았다.

(14) a. 내 생각에는 그이가 죽겠다.

b. \*내 생각에는 그이가 죽을 것이다.<sup>67)</sup>

(15) a. \*진단 결과에 따르면 그이는 죽겠다.

b. 진단 결과에 따르면 그이는 죽을 것이다.<sup>68)</sup>

하지만 염재일(2005)은 객관적인 상황이 주어진 경우에도 ‘-겠-’이 쓰일 수 있다고 다음의 반례를 제시하였다.

(16) (상자에 흰 돌 1개와 검은 돌 1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검은 돌이 나오면 흰 돌이 남겠다.<sup>69)</sup>

추측근거의 유무에 따라 ‘-겠-’과 ‘-르것-’의 ‘추측’의 의미적 차이를 비교

---

66) 염재일(2005:3)

67) 서정수(1978:102)

68) ibid.

69) 염재일(2005:4)

한 연구도 있다. 고창운(1991)은 화자가 갖는 추측 근거를 청자도 갖고 있다고 믿는 경우 ‘-겠-’이, 청자가 추측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 경우 ‘-르것-’이 쓰인다고 보았다.

- (17) a. - 10시가 지난 걸 보니, 오늘 순이는 안오겠다.  
- 그렇게 말이야. 막차 도착시간이 벌써 지났잖아?
- b. - 10시가 지난 걸 보니, 오늘 순이는 안 올거야.  
- 왜?70)

하지만 이남순(1981, 1988)은 서술문에서 ‘-겠-’은 화자의 배타적 판단을 나타내고, ‘-르것-’은 청자나 제 3자의 판단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인 판단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여 고창운의 주장과 배치된다.

그밖에 박근호(1990)는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 나름대로의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에 ‘-겠-’의 ‘추측’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안명철(1983)은 발화 현장에서 추측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르것-’이 쓰인다고 보았다. 위의 비교 연구들은 비록 ‘-르것-’과 ‘-겠-’을 두고 통합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르것-’을 ‘추측’의 의미 기능을 갖는 표지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르것-’은 말할이의 의도를 나타내므로 행동자는 화자 자신으로 나타나고 사행은 행동성 동사와 함께 나타나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18) 나는 너를 안 만날 것이다.<sup>71)</sup>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르것-’은 화자의 확고한 믿음에 입각한 추측이 화자 자신의 의도와 일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서정수(1978)

---

70) 고창운(1991:600)

71) 서정수(1978:91)

은 ‘추측’의 의미가 일차적 쓰임, ‘의도’의 의미는 부차적 쓰임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서정수(1978)에 따르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되는데, 예문 (19)와 같이 ‘기어이’, ‘반드시’와 같은 부사와 함께 나타나 화자의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주는 경우로 그 쓰임이 한정된다.

(19) a. 나는 기어이 거기에 갈 것이다.

b.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야 말 것이다.<sup>72)</sup>

국어에서는 ‘-겠-’과 ‘-르것-’ 이외에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어 문법에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단일한 표지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겠-’과 ‘-르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의 하나이지 시제적 범주에 속하는 미래 시제 표지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김차균(1981)이 언급한 ‘-겠-’과 ‘-르것-’이 갖는 불확실성과 성광수(1984)가 ‘추정’의 가치에서 화자의 단정을 고려한 점은 언술작용이론의 불확실성과 책임지기 작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단순미래로 표현된 언술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고 미래를 표현하는 보다 다양한 한국어 표지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단순미래가 내포된 문장의 번역에 나타나는 ‘-겠-’과 ‘-르것-’의 용법을 발화 상황과 관련된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두 표지를 지배하는 불변적 작용이 무엇인지 메타 언어적 도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72) *ibid.*

## IV. 언술분석

### 1. 인칭유형별 분석

단순미래는 약속, 명령, 예언, 충고, 계획, 예측 등 다양한 의미가치를 가지며 언술의 주어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가치를 취한다. D. Maingueneau(1994)에 따르면, 언술은 발화내적인 힘force illocutoire에 영향을 받는데, 미래 언술의 양태적인 발화내적인 가치에 대한 해석과 언술의 주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언술의 주어가 1인칭 je로 나타난 경우 ‘약속’의 의미를, 2인칭 tu로 나타나는 경우 명령의 의미를, 비인칭인 경우 필연성, 개연성, 가능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본 장에서는 언술의 주어에 따른 단순미래의 다양한 의미효과를 알아보고,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 소설 『La Peste』<sup>73)</sup>를 선택하여 1·2·3인칭 주어와 단순미래가 함께 쓰인 언술을 각각 발췌하였다.

#### 1.1. 1인칭

##### 1.1.1. Je

대화상황에서 1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je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 번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겠-’의 사용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소설 『La Peste』에서 발췌한 예문에 따르면 1인칭 주어 je가 나타나는 언술은 소설 전체에 걸쳐 25개이다. 그 중 9개의 언술이 ‘-겠-’으로 번역되었고, 3개의 언술이 ‘-르겠-’으로 번역되었다. 그 외 ‘-리’로 번역된 것은 1개, ‘-지(요)’의 형태로 번

73) 본 장에서 사용한 예문들은 다음의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다.

cf. Camus, A.(1947). *La Peste*, Gallimard, 김화영 역(2009). 『페스트』, 책세상.

역된 것은 4개, ‘-테니’ 형태로 번역된 것은 2개, 현재형으로 번역된 것은 1개, 기타 형태로 번역된 것 5개가 있다.<sup>74)</sup>

1인칭 인칭대명사 je가 주어로 쓰인 언술의 번역에서의 차이는 사행의 유형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행의 유형은 크게 être, avoir와 같은 비동작성 사행과 그 외의 동작성 사행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행의 유형에 따른 번역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예문 중 비동작성 사행 être가 사용되어 화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언술은 아래 두 예문이다. 이 두 예문의 언술은 모두 ‘-겠-’으로 번역되었다. 사행에 동작성이 없는 경우, 주어의 의지적 표현과 양립 불가능하고,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주어에 달려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행의 동작성 유무와 그에 따른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언술행위주체의 자기지배성 유무의 차이에서 번역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해볼 수 있다.

(20) Si vous pouvez vous tirer de cette affaire, j'en **serai** profondément **heureux**.

만약 선생이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기쁘겠습니다.

(21) Oui, disait-il, mais en persévérant, je **serai moins nerveux**.

“그러나 참고 견디다 보면 마음이 진정 되겠죠.”

주어가 1인칭인 경우의 프랑스어 단순미래의 용법은 단순하게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 (20)과 (21)에서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으로서 단순미래가 사용되었다. 반면 단순미래가 한국어의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 ‘-

74) <표 1> 1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je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래 번역 양상

-겠-	-르겠-	-리	-지	-르티이	현재	기타	계
9	3	1	4	2	1	5	25

겠-'으로 번역된 경우에 '-겠-'의 용법의 차이는 사행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문 (20)과 (21)을 살펴보면, 언술의 사행이 언술행위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는 언술행위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 번역문에는 '추측'의 의미가치를 지닌 '-겠-'이 사용된다. 언술에서 "행동주가 어떤 행동에 대한 자발성이 결여"된 경우 '-겠-'이 '추측'의 의미가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sup>75)</sup> 예문 (20)의 사행 *être heureux*은 언술행위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따라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는 언술행위주체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예문 (21)의 사행 *être nerveux* 역시 언술행위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진정되는 것은 주어 *je*의 의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추측의 의미 가치를 지니는 '-겠-'이 사용되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해볼만한 것은 위 두 언술에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건절이 수반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어 단순미래의 경우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의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지표가 언술 장면과 단절된 아오리스띠끄 특징을 지닌다. 예문 (20)에서는 *si*절이 나타내는 조건인 '선생(청자)이 난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주절의 사행이 실현된다. 하지만 현 발화상황은 청자가 아직 난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현 발화순간의 상황과 단순미래로 나타난 주절의 사행의 실현 사이에는 단절이 나타난다. 예문 (21) 또한 제롱디프 *gérondif*로 나타난 *en persévérant*가 조건의 의미 기능을 하는 상황 보어로서 사용<sup>76)</sup>되어 화자가 '참고 견뎌야' 주절의 사행이 실현됨을 나타낸다. 하지만 문맥 속에서 화자가 손을 떨고 있음이 명시되어있고 화자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발화상황과 주절의 사행의 실현사이의 단절이 나타난다. 따라서 주절에 아오리스띠끄의 특징을 지닌

75) 김혜정(1994)

76) 이화영(2007:269)

단순미래가 사용되었다.

반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위 예문의 사행의 유효화가 언술행위주체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므로 언술행위주체는 미래에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번역문에서 조건절 없이 “기쁘겠습니다”, “진정되겠죠” 형태가 올 수도 있다. 이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청자로부터 “왜?” 또는 “어떻게?”의 추가적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문 (20), (21)과 같이 근거 지표가 될 만한 조건절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의 예문 분석을 통해 비동작성 사행이 단순미래로 나타나는 경우 한국어에서 추측의 의미를 갖는 ‘-겠-’으로 번역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어 단순미래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언술장면에 나타나 있지 않거나 언술장면과 단절이 된 장면을 구축하는 한편, 한국어 표지 ‘-겠-’은 유효화를 추측할만한 근거지표가 언술장면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행에 동작성이 나타나있고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주어에 달려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동작성 사행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겠-’으로의 번역이 나타난다.

(22) - Ah! ceux-là, disait M. Michel, je **finirai** par les avoir.

“아! 나쁜 놈들, 놈들은 기어코 **잡고 말겠어.**”하고 미셸 씨가 말했다.

(23) J'ai des amis un peu partout et ils feront le premier noyau.  
Et naturellement j'y **participerai.**

여기저기 친구들이 있으니, 우선 그들이 중심이 되어주겠죠. 그리고 물론 나도 거기에 **참가하겠습니다.**

(24) - Non, mon père, dit-il. Je me fais une autre idée de l'amour. Et je **refuserai** jusqu'à la mort d'aimer cette création où des enfants sont torturés.

“아닙니다, 신부님.”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놓은 이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25) - Je **resterai** près de vous, lui dit-il doucement.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하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칭 주어 je와 함께 나타나는 단순미래 언술에서 동작성 사행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가장 우선되는 단순미래의 가치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순미래는 사행을 시공간적으로 위치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양태가 암시될 수는 있지만 우선적 가치는 아니다.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곧 일어날 사건을 확실한 것으로 제시하는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나타나는 ‘-겠-’은 시제적 가치보다는 양태적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제3장의 선행연구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지 ‘-겠-’을 근본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문 (22)~(25)에 나타난 ‘-겠-’은 의도의 의미 가치를 갖는다. 시제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와 더불어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 즉, 양태적 가치가 언술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동작성 사행의 경우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주어이자 언술행위주체의 의지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주체관계가 부각되는 경우 약속의 의미 가치를 갖는다.

예문 (22)~(25)에 나타난 언술행위주체는 자신이 선택한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될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언술에 책임지기를 나타낸다. 예를들어 예

문 (22)에서는 ‘범인을 잡겠다’는 화자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화자의 의도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행의 유효화가 언술행위주체에 달려있으므로 의지적 가치가 암시된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문에서 의지의 의미 가치를 갖는 ‘-겠-’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가치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예문 (22)의 *je finirai par les avoir*를 ‘기어코’라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언술행위주체의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예문 (23)의 ‘물론’, 예문 (24)의 ‘죽어도’도 ‘-겠-’과 함께 사용되어 화자의 의도의 의미 가치를 강화시키는 부사이다.

예문 (22)와 같이 혼잣말의 경우에 화자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다짐’하는 의미 가치가 나타난다. 반면 예문 (25)와 같이 상호주체관계가 나타나는 언술의 경우 ‘약속’의 의미 가치가 나타난다. 예문 (25)에서는 주어 *je*와 청자 *vous*와의 상호주체관계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공언술행위주체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못하므로 언술행위주체는 자신이 선택한 서술연관관계에 책임을 지는 단언작용이 나타나지만, 사행이 주어에 가해지는 제약*contrainte*으로 인해 언술적 약속이 나타난다. 이를 대립의 부재라 한다.<sup>77)</sup>

1인칭 시제 *je*와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쓰인 언술이 ‘-르것-’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 한국어 표지 ‘-르것-’으로 번역되어 단순한 미래 추측을 나타낸다.

(26) - Alors, cela signifie qu’il faut que je me débrouille autrement?

Mais, reprit-il avec une sorte de défi, je **quitterai** cette ville.

---

77) A. Celle(1997)

“그러면 달리 어떻게 해보란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하곤 그는 도전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도시에서 **나가고 말 것입니다.**”

화자 자신이 동작주가 되는 경우, 즉 je가 주어로 나타나는 언술에서 ‘-르것-’은 본질적으로 추측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나타난다.<sup>78)</sup> 특수한 상황에 ‘-르것-’이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단순히 ‘나갈 것입니다’라고 쓰였다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가치보다는 시간적으로 미래 일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예문에서는 *avec une sorte de défi*(도전적인 어조로)라는 부사구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화자의 의도 표현을 강화시켜주고 있으므로 추측의 가치보다는 의도의 가치가 우세하게 번역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역자는 보조동사 ‘말다<sup>79)</sup>’를 결합하여 ‘나가다’라는 사행이 끝내 실현할 것이라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시킨다. 표지 ‘-르것-’은 ‘기어이’, ‘반드시’ 따위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두 예문은 1인칭 주어 je와 자기지배성이 없는 사행이 함께 나타나는 언술이다.

(27) Rieux lui prit la main sur la couverture.

- Laissez, docteur. Je **n’aurai pas le temps...**

리유는 이불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잡았다.

“짜두십시오, 선생님. 난 이제 **시간이 없을 겁니다.....**”

(28) - Faites vos fumigations régulièrement.

78) 서정수(1978)

79) 말다<sup>3</sup> [보조동사] 2. (동사 ‘-고(야)말다’ 구성으로 쓰여) 앞 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말. 일을 이루어 낸 데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이고 아쉬운 느낌이 있음을 나타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5년 10월 01일 검색,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Oh! ne craignez rien. J'en ai encore pour longtemps et je les **verrai** tous mourir. Je sais vivre, moi.

“짚질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 염려 마세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죽을 거예요. 나는 살아 남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문 (27)에서 서술연관관계 ‘시간이 없을 것이다’의 유효화는 주어의 의지 행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은 계속 흐르는 것이므로 화자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관련이 없다. 언술행위주체는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유효화의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지표가 언술장면에 나타나있지 않다. 이는 곧 단절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단순미래가 사용되었다. 한국어로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용법의 ‘-ㄴ것-’을 사용하여 번역되었다.<sup>80)</sup> 예문 (28)은 언술에 병치가 나타나 두 개의 상황 모두 근거지표로 사용된다. 하나는 현재(상태),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나타내므로 시제적 단절이 나타나 미래를 나타내는 절에서 단순미래가 쓰였다. 예문 (28)에서는 ‘죽다’라는 동사의 특수성에 유의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동사 mourir는 본래 사행의 유효화가 화자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은 동사다. 자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의지를 갖고 죽음을 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의도의 의미 가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겠-’을 사용하여 ‘죽겠어요’로 나타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하지만 예문 (28)은 문맥적으로 볼 때 살아남을 방법을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죽을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추측의 용법의 ‘-ㄴ것-’이

---

80) 염재일(2005)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1인칭 주어 je와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언술이 한국어 표지 ‘-르것-’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르것-’은 1인칭 주어와 함께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동반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자의 의지행위와 관계없이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되는 자기지배성이 없는 사행과 함께 나타나 추측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한편 ‘-겠-’과 ‘-르것-’ 이외에 1인칭 주어와 함께 미래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한국어 표지들이 있다. 첫 번째로 1인칭 주어와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나는 언술의 한국어 번역에서 종결어미 ‘-지’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종결어미 ‘-지’는 반말의 어미이다.<sup>81)</sup> ‘-지’가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와 결합하면 ‘-지요’가 되고, ‘-지요’의 준말 형태는 ‘-죠’이다.<sup>82)</sup> 다음 예문들은 ‘-지’, ‘-지요’, ‘-죠’, 3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29) - (...) Rieux demanda à Grad s’il avait prévenu le commissariat et l’employé prit un déconfit:

- Non, dit-il, oh! non. J’ai pensé que le plus pressé..

- Bien sûr, coupa Rieux, je le **ferai** donc.

리유는 그랑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서기는 낭패한 표정으로, “아뇨”하고 말했다. “오! 아닙니다. 제 생각에 보다 급한 것은.....”

“물론이죠” 하고 리유가 말을 막았다. “그럼 내가 신고를 하죠.”

(30) - Laissons cela, je **reviendrai** dans deux ou trois jours.

---

81) 남기심(2001:388)

82) 최수경(2014:42)

“그 일은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합시다. 2, 3일 후에 다시 오지요.”

(31) - Pour la première nuit, dit-il à Rambert, je te **tiendrai** compagnie.

“첫날밤은.” 하고 그는 랑베르에게 말했다. “내가 동무를 해주지.”

(32) “Vous les entendez, m’a-t-il affirmé : après la peste je **ferai** ceci, après la peste je **ferai** cela... (...)”

“저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그는 나에게 강조하는 것이었다. “페스트가 가고 나면 이걸 해야지. 페스트가 가고 나면 저걸 해야지 하는 소리 말입니다.”

‘-지’는 근본적으로 1, 2, 3인칭 주어와 모두 함께 쓰일 수 있고, ‘-겠-’, ‘-었-’등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동사, 보조동사, 형용사, 보조형용사 등의 선행 요소와 결합 가능하다. 하지만 ‘-지’가 갖는 의미값은 다른 요소들, 즉 주어, 선어말어미, 선행 요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sup>83)</sup> 언술 자료에서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종결어미 ‘-지’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면, 주어가 1인칭이고 동사가 동작성을 지닌 경우에 한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지’가 갖는 의미 값은 화자의 의지 표현이다.

예문 (29)의 동사 *faire*는 동작성이 있는 사행으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화자의 의지에 달려있고, 그에 따라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또한 화자의 확신이 담긴 *bien sûr*와 함께 쓰임으로써 의지의 의미값이 강화되었다. 예문 (30)에서도 동작성이 있는 동사 *revenir*가 사용되어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화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언술행위주체는 공언술행위주체에게 ‘2,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는’ 행위를 수행할 의도를 알린다. 그에

---

83) 최수경(2014:44)

따라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예문 (29)의 언술과 다른 점은 이전 절의 *laissons*이 1인칭 복수 *nous*를 주어로 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주체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화자의 의도 표현과 더불어 다시 돌아올 것을 청자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의미 가치를 갖는다. 약속의 가치는 다음 언술을 간접인용문으로 바꾸어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30') 그는 2,3일 후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 약속했다.

예문 (3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속하다' 동사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지'가 약속의 의미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문 (31)은 *tenir*라는 동작성이 있는 동사가 나타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화자의 의지에 달려있고,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또한 예문 (30)의 언술과 동일하게 화자와 청자 *Rambert* 간의 상호주체관계가 구축되어 약속의 의미 가치를 갖는 언술이라고 볼 수 있다. 예문 (32)의 언술은 화자의 의지행위와 양립가능한 동작성이 있는 사행 *faire*와 함께 쓰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이처럼 종결어미 '-지'로의 번역이 1인칭 주어와 동작성 있는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화자 자신을 동작주로 하는 행위를 성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수정(2014:111~112)에 따르면, '-지'가 표현하는 '의지'의 강도가 '-겠-'에 비해 다소 약하다는 차이가 있다.<sup>84)</sup> 그러한 경우 예문 (29)에서처럼 *bien sûr*라는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 의지 가치를 강화시키거나, 예문 (30)의 *dans deux ou trois jours*, 예문 (31)의 *pour la première nuit*와 같은 구체적 시간 지표를 동반하거나, 예문 (32)의

84) (ㄱ) 모르는척 하지 뭐~

최수정(2014:111~112)에 따르면, '-지' 뒤에 '뭐'라는 담화표지가 붙은 경우, '뭐'가 불확실성, 강도의 약화 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뭐'와 결합할 수 없는 '-겠-', '-을게-' 등에 비해 의지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après la peste*와 같이 구체적 상황적 지표를 동반하여 서술연관관계가 시공간적으로 한정작용을 받아 단언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지금까지 종결어미 ‘-지’로 번역되어 동작성을 갖는 사행이 단순미래로 사용되어 1인칭 주어 *je*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용법의 종결어미 ‘-지’가 번역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단순미래 번역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유형은 의존명사 ‘-터-’가 지정사 ‘이’와 결합된 형태인 ‘-터이’가 관형사형 어미 ‘-르’과 함께 나타나는 ‘-르터이’로의 번역이다.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르터이’를 다음과 같은 번역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33) - *couchez-vous, prenez votre température, je viendrai vous voir cet après-midi.*

“가서 누우십시오. 그리고 체온을 재보세요. 오후에 가서 **빠드릴 테니.**”

(34) - *Dormez si vous le pouvez. Je reviendrai tout à l’heure.*

“될 수 있으면 꼭 잠을 자세요. 곧 돌아올 테니.”

위 언술 예문을 살펴보면 예문 (33)에서 *cet après-midi*, 예문 (34)에서 *tout à l’heure*와 같은 미래를 가리키는 시간적 지표가 사용되었다. 또한 앞문장과 시간적 전후 관계에 놓여있다. (33)에서는 서술연관관계 *couchez-vous*와 *prenez votre température*가 유효화된 이후에 *je viendrai*의 유효화가 고려되고, (34)에서는 서술연관관계 *Dormez*가 유효화된 이후에 *je reviendrai*의 유효화가 고려된다. 따라서 단순미래가 사용되었고, 언술 상황과 단절된 장면을 구축한다. 이 때, 한국어 번역문에서 의존명사 ‘-터-’<sup>85)</sup>가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의존명사 ‘-터-’는 보통 ‘이다’와 결합하여

---

85) 임동훈(1991:41)에서는 ‘-터이-’가 ‘-테-’로 교체되는 환경을 명시할 수 없으며, 그

‘예상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의 언술 예문과 같이 1인칭 주어과 동작성을 갖는 동사가 함께 나타나는 언술에서 사용된 경우에 ‘-터이-’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sup>86)</sup>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venir, revenir라는 언술의 사행이 동작성을 지니고 있고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화자의 의지에 달려있으므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터이-’가 번역문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예문들에서는 의존명사 ‘-터이-’가 연결어미 ‘-니’와 함께 쓰여 ‘-테니’의 형태로 쓰여 사행이 앞 문장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 전제가 됨을 나타낸다.

1인칭 주어와 동작성을 갖는 사행이 함께 사용된 언술에서 의도의 의미를 갖는 ‘-르터이’로의 번역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인칭 주어 je와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언술에서는 ‘-겠-’으로의 번역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표지 ‘-겠-’은 사행의 유형이 비동작성인 경우에 ‘추측’의 의미를, 동작성인 경우에 ‘의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1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언술에서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의 주체가 언술행위주체이므로 언술행위주체가 언술에 대한 책임지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여 미래 사건에 대한 ‘추측’과 ‘의도’를 나타내는 표지 ‘-겠-’으로의 번역문에도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언술행위주체의 의지행위와 상관없이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되는 사행과 함께 쓰이는 경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르것-’으로의 번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밖에 1인칭 주어와 동작성 사행이

교체되는 과정 역시 공식적인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 어휘화된 것으로 보았다. (안호경, 2001:115, 재인용)

86) 안주호(1997:244)에서 ‘상황이나 예정을 표시해주던 ‘-르터이-’가 1인칭에 쓰일 경우에 한하여 화자의 ‘의지’를 표시해주는 선어말어미로 문법화 되었다고 보고, 주어 인칭에 따라, 술어 유형에 따른 통사적 제약이 나타난다고 본다. 반면 안호경(2000:115)는 그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며 ‘화자의 의지’가 아닌 ‘화자가 추측하는 상황’의 의미로 ‘-터이-’가 사용되고, 그에 따라 인칭, 술어 유형에 따른 제약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안호경과 같이 ‘-터이-’를 ‘의지’를 표현하는 선어말어미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지만, 1인칭 주어와 동작성을 지닌 동사가 나타나는 언술의 경우에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사용되는 경우에 종결어미 ‘-지’와 의존명사 ‘-터’로의 번역도 나타나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다.

### 1.1.2. Nous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nous가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소설 『la peste』에서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nous와 단순미래가 함께 쓰인 언술은 14개이다. 이 중 ‘-겠-’으로 번역된 언술은 2개, ‘-르것-’으로 번역된 언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주어 nous와 단순미래가 함께 쓰인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한국어 번역 방법은 청유형 종결어미<sup>87)</sup>를 사용하는 것이다. 14개 언술 중 4개의 언술에서 단순미래가 청유형 종결어미로 번역되었다.<sup>88)</sup>

청유형 종결어미로 번역된 언술들을 살펴보자.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nous의 주체가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인 경우에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 모두에게 달려있으므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르것-’ 또는 ‘-겠-’으로의 번역보다는 공언술행위주체에게 행위의 유효화를 제안하는 청유형 어조의 번역문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5) - Tout ira mieux quand tu reviendras. Nous recommencerons.

- Oui, dit-elle, les yeux brillants, nous recommencerons.

“당신이 돌아올 때는 모든 일이 다 좋게 될 거요. 그때 세출받을 합시다.”

87) 청유형 종결어미로는 해라체 ‘-자’, 하계체 ‘-세’, 하오체 ‘-(읍)세다/-시다’, 합쇼체 ‘-(으)십시오/-시다’, 반말 ‘-아/-어’가 있다.

88) <표 2>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nous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래 번역 양상

-겠-	-르것-	청유형	기타	계
2	-	4	6	14

“그래요” 하고 눈을 반짝이며 그녀가 말했다. “**세출받하기로 해요.**”

(36) Je téléphone à l'hôpital et nous le **transporterons** en ambulance.

“내가 병원에 전화를 걸 테니 구급차로 **옮기도록 합시다.**”

(37) C'était aussi l'avis de Ramber.

- Demain matin, nous **irons** chez les petits, on tâchera de tout arranger.

랑베르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내일 아침, 우리 애들한테나 **가보세.** 가서 일을 조정해보지.”

예문 (35)는 아직 시공간적으로 좌표결정되지 않은 사행을 나타낸다. 이전 문장의 *quand tu reviendras*가 언술 상황과 단절을 나타내는 ‘당신이 돌아올 때’라는 근거 시점으로 작용한다. 이 언술의 주어 nous는 moi(화자/언술 행위주체)와 toi(청자/공언술 행위주체)를 나타내고, 이 주어가 갖는 특징은 상호주체관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상호주체관계가 사라지고 공언술 행위주체가 비록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프랑스어 단순 미래 시제의 언술 행위주체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언술 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독립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주어가 nous로 쓰이는 경우,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있어 공언술 행위주체의 동의 여부가 필요하다. 공언술 행위주체의 의사 결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르것-’, ‘-겠-’으로의 번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절 *nous recommencerons*은 아직 공언술 행위주체에게 ‘같이 가자’는 행위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행위의 유효화를 제안하는 청유형 종결어미 ‘-시다’를 사용한 번역문이 나타난다. 하

오/합쇼체의 청유형 종결어미 ‘-시다’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가 함께 언술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동작주가 있는 사행과 함께 쓰인다. 예문 (35)의 사행 *recommencer*는 동작성을 지닌 사행이므로 ‘-시다’로 번역되었다. 두 번째 *nous recommencerons*은 공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oui*라고 밝힌 후 언술이므로 단정적 어조의 ‘해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예문 (36)에서 병원에 전화를 건 후 환자를 구급차에 올리는 것이 순서이다. 첫 번째 절(현재)과 두 번째 절(미래)이 서로 다른 시제적 근거지표를 취하고 있고, *et*에 의한 병치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언술행위 상황과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단순미래로 나타난다. *moi*(화자/언술행위주체)와 *toi*(청자/공언술행위주체)를 나타내고, 이 주어가 갖는 특징은 상호 주체관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어 단순미래는 상호주체관계가 사라지고 공언술행위주체가 비록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언술행위주체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한다. 번역에서 공언술행위주체의 동의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청유 어조가 나타난다.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nous*와 함께 나타나는 단순미래의 번역에서 ‘-겠-’이 나타나기도 한다. 14개 언술 중 2개의 언술이 ‘-겠-’으로 번역되었다.

(38) - *Ma mère et moi, nous vous soignerons. Vous serez mieux ici.*

“어머니와 내가 간호하겠어요. 여기가 더 나을 겁니다.”

(39) - *La fièvre va reprendre, n'est-ce pas, Rieux, dit-il d'une voix essoufflée.*

- *Oui, mais à midi, nous serons fixés.*

“열이 또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리유?” 그는 숨가쁜 목소리로 말

했다.

“네. 그러다 정오가 되면 **결말이 나겠죠.**”

예문 (38)의 언술 주어 nous는 *ma mère et moi*(어머니와 나)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여기서 vous와의 상호주체관계는 사라지고 언술행위주체가 선택한 가치에 대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사행 soigner는 동작성을 갖는 동사로 유효화가 언술행위주체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 경우 주어 nous에 포함되는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청유형으로 번역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38)의 언술과 같이 nous에 포함되는 두 인물, 즉 어머니와 나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합의가 나타나있는 경우, 청유형이 아닌 의지의 의미가치를 갖는 ‘-겠-’으로 번역된다. 예문 (38)에서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의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지표가 ‘엄마와 내가 간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미리 구축되어있고, 이러한 지표는 언술 장면과 구별되는 장면을 구축하게 하여 언술 장면과의 단절이 나타난다. 번역에서 ‘-겠-’이 나온 이유도 동사가 동작성을 띠는 것과 동시에, 어머니와 내가 간호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반면, 예문 (39)의 언술 번역에서 나타나는 ‘-겠-’의 의미가치는 추측의 가치로 볼 수 있다. 동사 être와 형용사가 함께 쓰여 미래 상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여기에 미래 순간을 나타내는 *à midi*라는 시간적 지표가 언술장면과 단절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번역문에서는 추측의 의미가치를 갖는 ‘-겠-’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je가 상태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 ‘-겠-’으로 번역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어 nous와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언술이 한국어 ‘-지’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40) Mais cette fois-ci, on installerait Rambert chez Marcel et Louis. « Nous **prendrons un rendez-vous**, toi et moi. Si je n’y

suis pas, tu iras directement chez eux. On va t'expliquer où ils habitent. »

그러나 이번에는 랑베르가 아예 마르셀과 루이의 집으로 가있기로 했다. “자네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지. 혹 내가 안 오거든, 자네가 곧장 저애들 집으로 찾아가게나. 어디 사는지 가르쳐줄 테니 말이야.”

(41) - Je voudrais vous parler, dit Rambert.

- Nous **sortirons** ensemble, si vous le voulez bien. Attendez-moi dans le bureau de Tarrou.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고 랑베르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같이 **나가지**죠. 타루 씨의 사무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예문 (40)의 사행 *prendre un rendez-vous*는 유효화가 발화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문맥에서 *toi et moi*라는 상호주체관계가 나타나고 따라서 주어 *nous*는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어 단순미래의 특징은 공언술행위주체는 고려하지 않고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어 번역에서는 상호주체관계가 나타나는 경우 공언술행위주체를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양태적으로 공언술행위주체의 동의 여부를 묻는 형태의 번역이 나타난다. 위 예문에서는 어미 ‘-지’를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지’가 1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je*를 주어로하는 경우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주어가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nous*인 경우 ‘-지’는 제안의 의미 가치를 갖는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수정(2014:78)에 따르면 주어가 1인칭 복수형이나 2인칭으로 나타나고 동작성을 갖는 사행과 함께 어미 ‘-지’가 사용된 경우, 다른 동작주가 해당 명제가 표현하는 사태

를 성립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화자가 의견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nous와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나는 언술의 번역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nous에 포함되는 복수의 사람들 사이의 사행의 이행에 있어 합의 여부이다. 합의가 된 경우 ‘-겠-’으로 번역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안의 의미를 갖는 청유형 종결어미나 제안의 ‘-지’가 사용된 번역문이 나타난다.

## 1.2. 2인칭

소설 『la peste』 전체에서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tu와 단순미래가 나타난 언술은 2개, 2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vous와 단순미래가 나타난 언술은 15개이다.

### 1.2.1. Tu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tu와 단순미래가 함께 쓰인 언술은 2개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1개는 표지 ‘-르-’로, 1개는 청유를 나타내는 ‘-게’로 번역되었다.<sup>89)</sup>

(42) Mais il ajouta :

— Tout ira mieux quand tu **reviendras**. Nous recommencerons.

그러나 리유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당신이 돌아올 때는 모든 일이 다 좋게 될 거요. 그때 새출발을 합

89) <표 3>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tu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래 번역 양상

-겠-	-르-	-게	계
-	1	1	2

시다.“

(43) « Nous prendrons un rendez-vous, toi et moi. Si je n’y suis pas, tu **iras** directement chez eux. On va t’expliquer où ils habitent. »

“자네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지 혹 내가 안 오거든, 자네가 곧장 저 애들 집으로 **찾아가게나**. 어디 사는지 가르쳐줄 테니 말이야.“

예문 (43)의 언술을 살펴보면 si절 ‘내가 안 오거든’은 발화 상황에 화자가 올지 안올지 확인할 수 없다. 즉, 사행의 실현과는 단절된 상태를 나타내어 단순미래가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미래 *iras*가 갖는 의미 가치를 살펴볼 때, 사행의 유효화가 공언술행위주체에게 달려있어 공언술행위주체를 고려하지 않고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는 명령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주어는 아랫사람이나 친한 사이에 나타나는 tu로, 번역문에서는 손아래나 허물없는 사이에 무엇을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게’가 나타난다. 예문의 수가 2개 뿐이긴 하지만 tu와 함께 쓰인 단순미래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인 ‘-겠-’이나 ‘-르것-’ 등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대신 종결어미가 ‘-게’의 사용으로 명령의 의미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어 단순미래는 2인칭 주어 tu와 사용되어도 상호주체관계의 유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언술행위주체가 사실상 공언술행위주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행을 유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tu라는 상호주체관계가 부각되면서 단순미래의 시제적 가치는 사라지고 명령, 제안의 가치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 1.2.2. Vous

소설 『La Peste』에서 인칭대명사 vous와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난 언술은 16개이다. 그 중 vous가 존칭의 의미를 갖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경우는 14개이고, 2인칭 복수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경우는 2개이다. 먼저 vous가 존칭을 나타내는 단수 인칭대명사로 쓰인 14개의 언술을 살펴보면 ‘-겠-’으로 번역된 것은 3개, ‘-르것’으로 번역된 것은 3개이다. 그 밖에 3개의 언술이 현재로 번역되었고, ‘두고 보세요’라는 청유적 표현으로 번역된 언술 3개와 ‘-터-’로 번역된 언술 1개가 있다. 앞서 살펴본 2인칭 주어 tu에 반해, vous가 주어로 나타나는 언술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표지 ‘-겠-’이나 ‘-르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sup>90)</sup>

첫 번째로 ‘-겠-’으로 번역된 언술을 살펴보겠다.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추측 근거를 동반하는 경우 ‘-겠-’으로의 번역이 나타난다.

(44) Oh ! non, dit l'autre avec jovialité. Ça me fait plaisir de vous rendre service. Et puis, vous êtes journaliste, vous me **revaudrez** ça un jour ou l'autre.

“아, 천만에요!” 그는 유쾌하게 대답했다. “도와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게다가 선생은 신문기자니까 언젠가는 제게 **갚을 날이 있겠죠.**”

(45) Je vois, dit Tarrou, vous n'**entrez** pas dans nos formations.

90) <표 4>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vous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래 번역 양상

-겠-	-르것-	현재	-세요	-터-	기타	계
3	3	3	3	1	1	14

“보아하니.” 하고 타루가 말했다. “우리 보건대에는 안 들어오시겠군요.”

2인칭 주어 vous와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난 예문 (44)와 (45)는 단순미래의 주요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문이다. 예문 (44)는 문장 내에 *un jour ou l'autre*이라는 언술행위 순간과는 단절을 나타내는 시간적 지표가 내포되어있다. (44)에서 위치결정소는 언술행위 순간이 아닌 *un jour ou l'autre*이다. 이는 언술행위 순간에 대해 시제적 단절을 갖는다. 즉, 아오리스띠끄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예문 (44)와 (45)에서 언술행위주체는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서술연관관계에 놓여있고,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추측의 의미를 갖는 ‘-겠-’이 사용되어 번역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추측의 근거가 될 만한 상황적 근거지표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위 예문들에서는 예문 (44)에서의 *vous êtes journaliste*가, (45)에서는 *je vois*가 뒤 언술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할만한 근거로 사용되어 언술행위주체의 언술에 대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두 번째로 vous와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언술 번역에서 ‘-르것-’이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3개의 언술 예문이 ‘-르것-’으로 번역되었다. 1개 예문은 동작성이 있는 사행과 함께 나타난 경우이고, 2개의 예문은 비동작성 사행과 함께 나타난 경우이다. 아래 예문은 동작성이 있는 사행과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나 ‘-것-’으로 번역된 언술이다.

(46) Le docteur le regarda en face.

— Vous la **retrouverez**, dit-il.

의사는 그를 정면으로 보았다.

“부인을 다시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예문 (46)은 동작성을 지닌 사행이 나타난 언술이다. 예문 (46) 또한 단순 미래가 쓰여 언술행위 순간과 단절을 나타내며,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한다.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사행이 동작성을 갖는 경우에 언술행위주체가 임의로 공언술행위주체가 사행을 유효화할 것이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청유형이나 명령형 표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문 (46)에서는 표지 ‘-르것-’이 사용되었다. 언술행위주체는 ‘정면으로’ 공언술행위주체를 바라보며 말하였는데, 이는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될 것이라는 언술행위주체의 믿음을 나타내어 준다. 따라서 표지 ‘-르것-’이 언술행위주체의 서술연관관계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행이 동작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언술들을 살펴보자. 2인칭 언술의 경우 사행이 동작성을 갖는지의 여부가 번역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언술행위주체가 사행의 유효화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47) — Dans quinze jours ou un mois, vous **ne serez d’aucune utilité** ici, vous êtes dépassé par les événements.

“보름이나 한 달 후가 되면 선생님은 이곳에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실 것입니다. 사태가 사태인만큼 역부족인 거죠.“

(48) Rieux se détourna :

— Ma mère et moi, nous vous soignerons. Vous **serez mieux** ici.

리유는 얼굴을 돌렸다.

“어머니와 내가 간호하겠어요. 여기가 더 나을 겁니다.“

예문 (47)과 (48)에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게하는 상황적 근거가 문맥적으로 존재한다. (47)에서는 *vous êtes dépassé par les événements*(선생님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실 겁니다)가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즉 ‘사태가 역부족이므로’, 공언술행위주체가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언술에 대한 책임지기를 나타낸다. (48)에서는 *nous vous soignerons*(어머니와 내가 간호하겠어요)이 상황적 근거로 제시되어, ‘어머니와 내가 간호하는’ 상황이므로 공언술행위주체에게는 ‘여기가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표지 ‘-르것-’으로 번역되었다. 예문 (47)과 (48)은 동사 *être*가 쓰여 공언술행위주체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문에는 표지 ‘-르것-’이 나타난다.

한편 주어 *vous*가 상태를 나타내는 사행과 함께 나타나 한국어 현재로 번역되기도 한다. 아래 3개의 언술이 현재로 번역되었다.

(49) - A partir de maintenant, hélas! vous **serez** d'ici comme tout le monde.

“지금부터는 유감입니다만, 선생은 이 고장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50) - Vous avez raison, dit Grand. Vous lui **ferez du bien**, car je le trouve changé.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고 그랑이 말했다. “그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약이에요. 벌써 좀 나아진 것 같다니까요.”

(51) - (...) Je ne peux pas vous faire ce certificat qu'en fait, j'ignore si vous avez ou non cette maladie et parce que, même dans ce cas, je ne puis pas certifier qu'entre la second où vous sortirez de mon bureau et celle où vous entrerez à la préfecture, vous **ne serez pas infecté**.

“나는 그 증명서를 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선생이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지도 모를뿐더러,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내 진찰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혈청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전염이 안 된다고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문 (49)~(51) 모두 상태를 나타내는 사행이 단순미래로 나타나있다. 예문 (49)는 *à partir de maintenant*(지금부터는)이라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사용되어 언술행위 순간과의 단절을 나타내며 단순미래가 나타난다. 예문 (49)는 문맥적으로 공언술행위주체에게 공언술행위주체의 상태를 통보하는 뉘앙스의 언술이다. 예문 (51)도 *le second*(순간)을 수식하는 종속절에 단순미래가 사용되어 언술행위 순간과의 단절을 나타낸다. 한편 예문 (50)과 (51)은 언술에 단순미래가 나타나 문맥적으로 사건적 전후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문 (49)~(51)은 한국어 번역문에서 현재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 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문 (49)의 경우 명령의 양태적 가치가 내재되어있다. 반면 예문 (50)과 (51)은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예문 (50)의 경우 ‘벌써’라는 시간부사를 동반하여 한국어 번역문에 사건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낸다. 예문 (51)은 ‘진찰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혈청이 들어가는 순간’은 아직 시공간에 위치결정되지 않은 순간을 나타내므로 ‘전염이 안된다’는 사실도 시공간에 위치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 차이는 (49)의 ‘선생은 이 고장 사람입니다’ 구문은 표지 ‘-르것-’을 사용하여 ‘선생은 이 고장 사람일겁니다’로 바꾸는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예문 (50), (51)의 ‘선생님이 약이에요’ 문장과 ‘전염이 안 된다고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문장을 표지 ‘-르것-’을 사용하여 ‘선생님이 약일거예요’와 ‘전염이 안 될거라고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로 바꾸어도 문맥상 어색하지 않다.

아래 예문 (52)와 (53)은 *vous verrez*라는 관용적 표현이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어 ‘두고 보세요’로 번역되는 언술이다.

(52) - Ah! docteur, disait l'employé, j'ai eu tort. Mais je recommencerais. Je me souviens de tout, **vous verrez**.

“아! 선생님.”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겠어요. 다 외우고 있거든요. **두고 보세요.**”

(53) « Oui, disait-il à Tarrou, on finira par ouvrir les portes. Et **vous verrez**, ils me laisseront tous tomber! »

“그럼요”라고 그는 타루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시 문이 열리고 말 테죠. 그러면 **두고 보세요**. 모두들 나 같은 건 알 바 아니라는 듯 버릴 겁니다.”

(54) - **Vous verrez** ce que j'en ferai, disait Grand, et tourné vers la fenêtre, il ajouta : « Quand tout cela sera fini. »

“이걸 장차 어떻게 만드는지 **두고 보세요.**” 하고 그랑이 말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서 덧붙였다.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뒤의 얘기지만요.”

예문 (52)~(53)에서는 *vous verrez*가 ‘두고 보세요’라고 번역되었다. 어미 ‘-세요’는 해요체의 자리에 쓰여, 설명, 의문,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공언술행위주체에 달려있으므로 언술행위주체가 독립적으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지 않고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공언술행위자에게 유효화를 고려하게끔 한다.

주어 *vous*가 2인칭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의 언술을 살펴보자. 2개의 예문에서 2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vous*가 단순미래와 함께 나타났다. 2개의 예문

모두 ‘-르것-’으로 번역되었다.<sup>91)</sup>

(55) Et quand Rambert arriva à la porte, le rentier ajoutait, avec beaucoup d'énergie dans la voix :

— Du reste, mon idée est que vous **n'arriverez à rien**.

그리고 랑베르가 문 앞에까지 왔을 때, 그 연금생활자는 목소리에 있는 힘을 다 넣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게다가, 내 생각으로는 당신들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실 거다 이겁니다.“

(56) Et battus sur l'aire sanglante de la douleur, vous **serez rejetés** avec la paille.

그리고 피비린내나는 고통의 타작마당에서 두들겨 맞아, 여러분은 짚과 함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예문 (55)에서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할만한 근거가 언술에 나타나있다. 예문 (55)에서는 *mon idée*가 그 근거가 되어 언술행위주체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예문 (56)에서는 이전 ‘-르것-’이 앞선 예문들에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할만한 상황적 근거가 부재한다. 염재일(2005)에 따르면, ‘-르것-’은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단순 추측을 나타내며 사용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존칭의 의미로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 *vous*와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나는 언술에서 공언술행위주체를 고려하지 않고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언술행위주체

91) <표 5> 2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vous*가 주어로 사용된 언술에서의 단순미래 번역 양상

-겠-	-르것-	계
0	2	2

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할만한 상황적 근거지표가 문맥에 나타나 있는 경우 표지 ‘-르것-’과 ‘-겠-’이 사용되어 번역된다. 그 외의 경우 청유형 혹은 명령형이 나타난다. 한편 vous가 2인칭 복수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경우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추측 근거가 동반하여 ‘-르것-’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표지 ‘-르것-’과 ‘-겠-’은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 1.3. 3인칭

3인칭은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개별적인 ‘인칭’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3인칭’은 ‘인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 Benveniste(1974:228)에 의하면 부재 인칭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 동사적 형태라 표현되기도 한다. 3인칭 주어 il(s), elle(s)는 언술행위 상황 밖에 위치한다. 따라서 언술행위 근원과 단절되어 아오리스티크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A. Celle(1997)에 의하면 3인칭 주어는 문맥적으로 단언적 가치를 나타내고 언술행위주체와의 관계를 구축하지 않는다. 3인칭으로 나타난 언술에서는 명확한 좌표결정작용이 나타난다. 주어가 문맥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미래는 상황 근거지표를 제시하고 양적 가치를 갖는다.

1인칭 주어는 je와 nous, 2인칭 주어는 tu와 vous에 의해서 표현되는 반면, 3인칭 주어는 il(s)과 elle(s)에 의해서만 표현되지 않는다. 문맥에서 명사의 한정작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나타낼 수 있다.

단순미래는 시제적 한정작용이 없어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단순미래는 한정작용을 받는 형태이다.

우선 3인칭 주어 중 주어가 동작성을 띠는 유정형 주어 *sujet animé*가 단순미래와 함께 쓰인 언술부터 살펴보자. 주어가 3인칭 유정형이고 동작성을 지닌 경우에 그 주체가 공언술행위주체가 아니라면 예측의 가치가 나타난

다.<sup>92)</sup> 이러한 경우에 한국어 번역에서 ‘-겠-’이 나타나기도, ‘-르것-’이 나타난다. 첫 번째로 ‘-것-’으로 번역되는 언술들을 살펴보자.

(57) — Ah ! celui-là, il **crèvera** tout habillé. Comme ça, pas besoin de toilette. Il s’en ira tout droit.

“허! 저 사람은 옷을 차려 입은 채 **거꾸러질 거예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힐 필요도 없죠. 곧장 가면 되니까요”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58) Ensuite, ils **réfléchiront** et moi aussi. Mais le plus pressé est de les guérir.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반성할 것이고**, 또 나도 반성할 것입니다.

(59) Mais il **continuera** d’être l’historien des cœurs déchirés et exigeants que la peste fit alors à tous nos concitoyens.

그러나 서술자는 페스트가 유린한, 그 당시 우리 모든 시민의 비통하고 까다로운 마음에 대해서는 역사가 **노릇을 계속할 것이다**.

위 예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특징은 문맥적 한정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문 (57)에서는 *celui-là*, (58)에서는 *ensuite*, (59)에서는 *mais*가 쓰여 문맥적으로 한정작용이 나타난다. 위의 지표들은 이전 문장에 한정되어 있거나 담화적 연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문맥 속에 언술의 상황적 근거지표가 제시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적 근거지표에 의해 자신의 언술에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언술에서는 상황적 근거지표가 꼭 나타나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어 번

---

92) A. Celle(1997)

역에 있어서 상황적 근거지표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데, 위의 3개의 예문과 같이 상황적 근거지표가 나타난 언술은 ‘-르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르것-’이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를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0) « Oui, disait-il à Tarrou, on finira par ouvrir les portes. Et vous verrez, ils me **laisseront** tous tomber ! »

“결국은 시 문이 열리고 말 테죠. 그러면 두고 보세요. 모두들 나 같은 건 알 바 아니라는 듯 **버릴 겁니다.**”

예문 (60)은 ‘두고 보세요*vous verrez*’라는 표현이 화자의 언술에 대한 책임지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르것-’으로 번역되어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61) — Peut-être, mais je ne peux pas supporter l'idée que cela va durer et qu'elle **vieillira** pendant tout ce temps.

“그렇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그 여자가 **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예문 (61)은 사행이 지니는 고유의 특성에 의해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viellir’라는 동사는 ‘늙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사람이 늙는 것은 주어(언술행위주체)의 의지와 관계 없이 유효화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는 것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언술행위주체, 공언술행위주체, 주어 elle조차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화자는 당연히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될 것이라고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미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한국어 번역에 있어 언술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를 나타내는 ‘-르것-’을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62) — Pensez-vous qu'il **viendra** ce soir?

“오늘 저녁에는 올 것 같소?”

위 예문에 나타난 술어 *viendra*는 한국어로 ‘올 것 같다’라고 번역 되었다. 이는 ‘-르것-’이 사용되었지만 ‘같다<sup>93)</sup>’라는 동사가 붙어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프랑스어 문맥의 *pensez-vous*가 쓰여 문맥에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공언술행위주체에게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르것-’만 사용된 경우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나므로 동사 ‘같다’와 함께 번역한 것이다.

두 번째로 3인칭 유정형 주어가 나타나는 언술은 ‘-겠-’으로의 번역도 드물게 나타난다. 3인칭 유정형 주어는 1인칭 주어와 2인칭 주어보다는 덜 한정적이지만 부정형 주어보다 더 한정되는 형태이다. 명사의 한정작용을 살펴보면, 언술행위주체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추론함에 있어 주어와 그 특징들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둔다. 주어가 3인칭 유정형 주어이고 사행이 동작성을 갖는 경우, 단 3개의 언술이 ‘-겠-’으로 번역되었다.

(63) — Ah! dit Cottard, c'est possible, en effet, tout le monde **devra tout recommencer**.

“아!” 하고 코타르가 말했다. “그렇겠군요. 사실 모두들 모든 일을 전부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64) — Je les entends d'ici : « Nos morts... », et ils **iront casser la croûte**.

“여기 앉아서도 훤히 들리죠. ‘고인이 되신 분들께서는……’, 그 다음

---

93) [4] (‘-ㄴ/는 것’, ‘-르/을 것’ 뒤에 쓰여) 추측,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5년 10월 2일 검색,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에는 한턱 잡수시겠죠.”

3인칭 주어로 나타난 위의 예문들의 언술은 문맥적으로 한정된 상황적 근거지표가 부재하고 있다. 프랑스어 단순미래는 상황적 근거지표가 부재하는 언술에서도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표지 ‘-겠-’이 사용되었다. 번역문을 살펴보면, ‘-겠-’으로 번역된 경우에도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예문 (63)에서 3인칭 주어가 실제로 사행을 유효화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언술행위주체가 언술행위순간에 사행이 유효화될 것이라고 고려하며 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겠-’으로의 번역문도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예문 (64)에서 ‘고인이 되신 분들’이 죽은 후에 식사를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언술행위주체는 서술연관관계가 실제로 유효화될 것이라고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언술이 화자의 예측을 나타낸다고 보다 가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정형 주어가 단순미래와 함께 사용된 언술에서는 ‘-르것-’으로의 번역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상황적 근거지표가 문맥에 나타나있는 경우 ‘-르것-’으로 번역된다. 드물게 동작성을 갖는 사행과 함께 사용된 언술에서 ‘-겠-’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추론하는 데 있어 주어와 그 특징들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경우 ‘-겠-’으로 번역된다.

이번에는 동작성을 띄지 않는 부정형 주어 *sujet inanimé*가 단순미래와 함께 나타난 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적으로 한정작용이 나타나는 시제적 지표를 동반하는 언술은 체계적으로 ‘-르것-’으로 번역된다.

(65) — Et les sérums ?

— Ils **arriveront** dans la semaine.

“그래, 혈청은 어떻게 되었나요?”

“금주 중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66) Mais sur quelques-unes, l'écriteau " Fermé pour cause de peste " atteste qu'elles **n'ouvriront pas** tout à l'heure avec les autres.

그러나 그중 몇 집에는 “페스트로 인해 폐점”이라는 패가 나붙어, 다른 가게들처럼 잠시 후면 문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67) Je ne sais pas ce qui m'attend ni ce qui **viendra** après tout ceci.

앞으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올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68) — Bon, dit Tarrou. Après tout, les choses **s'arrangeront** peut-être pour vous aussi.

“어쨌든 당신도 아마 형편이 좀 **나아질 거**예요.”

예문 (65)~(68)와 같이 아직 시공간에 위치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가리키는 시제적 지표를 동반한 언술의 경우 ‘-르것-’의 형태로 번역되었다. 예문 속 *dans la semaine, tout à l'heure, après tout ceci, après tout*와 같이 시제적 지표가 나타남으로써 언술행위상황과 단절된 미래 상황에 대한 좌표결정 작용이 나타나고 언술이 갖는 미래 출현소를 구축하는 가치가 우선시된다.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표지 ‘-르것-’이 나타난다.

시제적 지표가 동반되지 않은 언술이라도 본래 무정형 주어와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나는 언술에서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발화자나 공발화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에, 즉 상호주관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화자나 공발화자의 주관성을 나타내거나 언술행위주체의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sup>94)</sup> 이 경우에도 번역문에서 ‘-르것-’으로의 번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69) — Tout **ira** mieux quand tu reviendras. Nous recommencerons.

“당신이 돌아올 때는 모든 일이 다 좋게 될 거요. 그때 새출발을 합시다.”

위 예문에서 사용된 주어 *tout*는 어떤 하나의 사물을 지칭하는 한정적인 주어가 아닌 비한정적 주어이다. 상황적으로 비한정적 주어와 함께 단순미래가 사용된 경우 본래 단순미래가 갖는 미래 출현소를 구축하는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언술은 ‘-르것-’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 ‘-르것-’이 사용된 언술에서 미래 출현소를 구축하는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70) — Les rats sont morts de la peste ou de quelque chose qui lui ressemble beaucoup, concluait-il. Ils ont mis dans la circulation des dizaines de milliers de puces qui **transmettront** l’infection suivant une proportion géométrique, si on ne l’arrête pas à temps.

“쥐들은 페스트 또는 그와 대단히 흡사한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고 그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 쥐들은 수만 마리의 벼룩을 퍼뜨려놓아서 제때에 그걸 막지 않는다면, 그 벼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

94) A. Celle(1997)

병을 전염시킬 것입니다.”

위 예문에는 상호주체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해 공언술행위주체나 행위자agent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따라서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언술행위주체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해 책임지기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르것-’으로 번역된다. 조건을 나타내는 si절의 내용인 ‘쥐가 벼룩을 퍼트리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은 시공간에 위치결정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벼룩이 병을 전염시킬’ 상황도 아직 시공간에 위치결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미래가 사용되었는데, 언술행위주체는 언술의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될 것이라고 고려하고 있으므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상황적 지표가 주어져 화자의 주관성이 드러난 언술이 나타나 번역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다음 언술들이 그 예이다.

(71) — Qu’est-ce que c’est que cette histoire de rats ?

— Je ne sais pas. C’est bizarre, mais cela **passera**.

“그 쥐 이야기는 대체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해괴한 일이지만 **지나가겠지**, 뭐.”

(72) — J’espère que ce ne **sera** pas long.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문 (71)에서의 *je ne sais pas*, 예문 (72)에서의 *j’espère que* 구문을 통해 각각 화자의 불확실성과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겠-’으로 번역됨을 확인할 수 있다. 3인칭 부정형주어가 단순미래와 함께 나타난 언술 예문에서 단 3개의 언술이 ‘-겠-’으로 번역되었는데, 화자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문맥적 상황지표와 함께 동반하는 언술에서 ‘-겠-’으로 나타났다.

한편 3인칭 부정형 주어와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나는 언술의 번역에서 ‘-겠-’과 ‘-르겠-’ 이외에 많이 나타나는 번역은 현재 시제로의 번역이다. 특히 상태 동사 être와 함께 나타나는 언술의 번역에서 현재 시제로의 번역이 자주 나타난다. 7개 언술 중 2개의 언술만이 ‘-르겠-’으로 번역되었고 나머지 5개 언술은 현재형으로 번역되었다.

(73) Espérons que ce **ne sera pas plus grave** aujourd’hui qu’alors.

지금 이 그때보다는 덜 심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74) — Vous avez raison. Et puis quand nous aurons une dizaine de morts, ce **sera** le bout du monde.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열 명만 죽으면 이 세상 끝장이라도 난 듯이 떠들어댁니다.(...)”

(75) Dix médecins et une centaine d’hommes. C’est beaucoup, apparemment. C’est à peine assez pour l’état présent de la maladie. Ce **sera insuffisant** si l’épidémie s’étend.

“열 명의 의사를 포함해서 백여 명의 인원이 왔어요. 보기에는 많습  
니다. 그런데 그 인원으로는 현재의 병세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합니  
다. 병이 더 퍼지면 그 인원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주어가 비 한정적일 때, 단순미래의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가 우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한정적인 주어가 사용될 때는 단순미래의 순수한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단순미래의 속성부여의 가치가 나타난다. 위의 언술 예문 3개는 주어가 한정적이다. 예문 (73)의 *ce*는 ‘20년 전에 돌아왔던 그 병’으로 한정되고, 예문 (74)의 주어 *ce*는 문

맥적으로 ‘열댓 명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예문 (75)의 *ce*도 문맥적으로 ‘열 명의 의사를 포함한 백여 명의 인원’을 지칭하여 문맥적으로 한정작용을 받은 주어이다. 이처럼 한정적인 주어가 단순미래의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être*라는 사행이 갖는 특징인 상태를 나타내는 가치가 우세하게 되어 언술이 미래에 대한 출현소를 구축하는 가치보다 속성부여의 가치가 우세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에서도 미래를 나타내는 ‘-겠-’ 또는 ‘-르것-’으로의 번역이 아닌 현재 시제로 번역된다.

*être*동사의 단순미래가 현재로 번역된 또 하나의 예문을 살펴보자. 이는 단순미래의 습관을 나타내는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76) — Oui, approuva Tarrou, je peux comprendre. Mais vos victoires **seront toujours provisoires**, voilà tout.

“네.” 타루가 끄덕거렸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하는 승리는 언제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뿐이죠.”

단순미래는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과 양립 가능하다. ‘습관적 가치’를 갖는 미래는 양태적 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언술에 내포된 주행작용에 관계가 있다고 본다. 위의 예문과 같이 반복을 나타내는 상적 지표 *toujours*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있어야 한다. *toujours*는 언술상황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언술상황에 사행을 위치시키는 지표이다. 따라서 단순미래의 근본적 가치인 미래에 시간적으로 출현소를 구축하는 가치, 즉 시제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상태를 나타내는 사행 *être*와 한정적 주어 *vos victoires*와 함께 속성 부여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현재형으로 번역된 언술 예문과 ‘-르것-’으로 번역된 언술 예문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77) — Envoyez-lui deux cents francs, demanda Cottard, ce **sera**

**une bonne surprise** pour elle.

“200프랑을 보내주세요.” 하고 코타르가 부탁했다. “그렇게 하면 그 애가 좋아서 **깜짝 놀랄 거예요.**(...)”

(78) — Ce n'est là qu'une approximation. Quand je serai arrivé à rendre parfaitement le tableau que j'ai dans l'imagination, quand ma phrase aura l'allure même de cette promenade au trot, une-deux-trois, une-deux-trois, alors le reste **sera plus facile** et surtout l'illusion sera telle, dès le début, qu'il sera possible de dire : « Chapeau bas ! »

“이것은 대충 해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장면을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여 나의 문장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말의 발걸음, 그 자체와 딱 들어맞는 보조를 갖추게 되는 때에야 비로소 나머지가 더욱 쉬워질 것이고 특히 처음부터 떠오르는 환상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아마도 '모자를 벗으시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79)— De toute façon, conclut Garcia, ce n'est pas moi que ça concerne, mais Raoul. Et il faut que je le retrouve. Ça **ne sera pas facile.**

“아무튼.” 가르시아가 결론을 내렸다 “그 문제라면 내가 아니라 라울이야. 그러나 내가 그를 찾아보겠어. **쉽지는 않을 텐데.**“

위의 세 개의 언술 예문은 인식론적 미래가 나타난 예문으로 보인다. 이는 3인칭 주어의 언술에서 나타나는 단순미래의 특징 중 하나인 인식론적 미래futur épistémique<sup>95)</sup>, 양태적 미래<sup>96)</sup>이다. 이는 3인칭 주어의 언술에서

동사가 être와 avoir인 경우에 추측이나 추측의 의미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문 (77)을 살펴보면, 화자 Cottard는 본래 누이동생에게 매달 100프랑을 보냈으나, 이번엔 200프랑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 근거를 통해 화자는 평소와는 달리 100프랑의 돈을 더 받은 누이동생이 놀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서술연관관계가 실제로 유효화 되는 것, 즉 누이동생이 돈을 받고 ‘좋아서 깜짝 놀라는 것’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예문 (78)에서 *le reste sera plus facile*의 주어는 *le reste*이지만 쉽다는 상태를 느끼는 주체는 언술행위주체이다. 프랑스어 단순미래에서는 언술행위주체가 주어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위 언술이 유효화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론적 미래 용법이 나타난 언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식론적 미래가 쓰여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르것-’으로 번역됨을 확인할 수 있다. ‘-르것-’이 갖는 의미 가치가 추측의 가치이므로 ‘-르것-’으로의 번역이 자연스럽다.

예문 (79) 또한 단순미래가 쓰인 문장에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 *supposer*를 추가하여 ‘*je suppose que ce n’est pas facile*’의 문장으로 바뀌도 의미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화자 Garcia는 Raoul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추측의 의미는 번역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추측’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터-’가 쓰여 번역되었다.

이처럼 3인칭 부정형 주어와 상태를 나타내는 사형 être가 함께 나타나는

95) Stage(2002)는 인식론적 미래를 “화자가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의 사건을 나타내는 언술의 명제적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 가정을 발화하면서, 화자의 세상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이 사건을 불확실한 것으로 단언의 도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고 정의한다. (이선경, 2013, 재인용).

96) J. Damourette와 E. Pichon(1911-1936[1970]T5:1821)은 “양태적 미래는 동사가 être와 avoir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être와 avoir의 단순미래는 주로 친밀어에서 쓰이면서, 사실이 단지 추측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재 대신에 사용되며, 일종의 설명이나 주석을 붙이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선경, 2013, 재인용).

단순미래 언술에서 미래를 표현하는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언술은 인식론적 미래에서 뿐이다. 따라서 인식론적 미래가 나타나는 언술에서는 번역문에서도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인 ‘-르것-’이나 ‘-터-’가 쓰여 미래에 대한 언술행위주체의 추측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속성 부여의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나 한국어의 현재 시제로 번역된다. 3인칭 주어와 단순미래가 함께 쓰여 인식론적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겠-’으로의 번역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겠-’이 제 3자의 행동에 관한 짐작에는 쓰이지 못한다는 서정수(1978)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형주어와 단순미래가 함께 쓰인 경우, ‘-르것-’의 번역이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번역에 있어 ‘-르것-’과 ‘-겠-’의 사용이 체계적으로 구분된다. 시간적 한정작용을 나타내는 시제적 지표를 동반하거나, 상호주관성이 부재하여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가 우세한 경우에 ‘-르것-’으로 번역된다. 문맥적으로 상황적 지표가 주어져 화자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언술에서는 ‘-겠-’으로의 번역이 나타난다. 한편, 상태 동사와 함께 쓰여 속성부여의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 현재시제로 번역된다.

## 2. 언술유형별 분석

언술의 유형에 따라 단순미래의 용법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에 단순미래가 쓰인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언술 예문들은 소설, 신문기사, 역사서, 법조문 등에서 발췌하였다.

### 2.1. 소설

가상의 이야기인 소설에 단순미래가 쓰인 경우,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연술행위주체가 담화 상황 원점으로 되돌아와 연술에 대한 책임지기 작용을 한다.

소설에 나타나는 단순미래의 특징은 복합적 좌표결정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상으로 구축된 근원 연술행위순간에서 예측을 나타냄과 동시에 근원 연술행위상황에서 회상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예측이 나타나는 경우 ‘-르것-’이, 회상이 나타나는 경우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80) Je **recommencerais**. Ma mère **sera prévenue**. Elle **viendra** voir la directrice du pensionnat et elle lui demandera de ma laisser libre le soir, de ne pas contrôler les heure auxquelles je rentre. (...) Bientôt j'**aurai** un diamant au doigt des fiançailles. Alors les surveillantes ne ma **feront** plus de remarques. On ne **doutera** bien que je ne suis pas fiancée, mais le diamant vaut très cher, personne de **doutera** qu'il est vrai et personne ne **dira** rien à cause de ce prix du diament qu'on a donné à la très jeune fille.

그 후에도 몇차례 나는 외박을 **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 어머니는 기숙사 원장을 만나러와서 **부탁했다**. 저녁시간에는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내가 기숙사에 돌아오는 시간을 통제하지 말아달라고. (...) 머지않아 나는 넷째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감선생님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약혼한 건 아니라는걸 **짐작할 것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비싼 보석이라서 그 반지가 진짜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어린 소녀가 지닌 다이아몬드 반지값 때문에 소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L'amant / 김인환, 《연인》, 민음사, 2007)

위 예문을 보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 대해서는 예측을, 언술행위순간에 대해서는 회상을 나타낸다. 그 경계는 *bientôt*로 나뉜다. 한국어 번역에는 ‘-르것-’, ‘-겠-’ 등의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가 회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없으므로, 과거로 번역되었다.

## 2.2. 신문기사

신문기사는 사실적 사건을 나타내는 글이다. 프랑스어에서 신문기사에 쓰이는 대표적 시제는 과거 시제(주로 복합 과거)와 현재 시제이다. 기사가 쓰여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기사의 내용이 되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과거 시제가 쓰이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인다. 현재 시제 또한 “사건에 대한 동시적 관점을 제공하고, 직접적인 증언 효과를 강조”<sup>97)</sup>하는 역할을 하며 자주 나타난다. 한국어에서도 프랑스어와 동일하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주로 쓰인다. 하지만 신문 기사에 미래 시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 단순미래가 쓰이는지, 각 경우에 따른 단순미래의 한국어 번역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문 기사에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첫 번째 경우는 단순미래의 가장 근본적 가치인 시제적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서술자인 기자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한 시점에 좌표결정될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81) Cette dernière **peinera** à transformer l'élan populaire qu'elle suscite depuis sa troisième libération en une stratégie unificatrice et efficace, comme lorsqu'elle fut libérée en 1995 et 2002.

1995년과 2002년 석방 때와 달리, 수치는 3차 석방 이후 나타난 대

---

97) A. Celle(1997)

중의 기세를 효과적이고 결집력 있는 전략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Renaud Egreteau, 「Junte birmane cherche habits civils」, Le monde dipolomatique, Décembre, 2010, p.12 / 허보미 역, p.16)

위 언술 예문처럼 언술행위주체(기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을 근거로 앞으로 일어날 ‘수치가 어려움을 겪다’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될 것을 고려할 수 있다.<sup>98)</sup> 사행을 미래에 위치시키는 상황보어circonstant와 함께 나타나 객관적인 시간적 한정작용이 나타나는 언술들을 살펴보자.

(82) Mais en février 2012, si le contexte n'a pas changé, le feu vert **ne sera pas acquis**.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2년 또다시 주둔 연장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Philippe Leymarie, 「Mais que fait donc l'Allemagne en Afghanistan?」, Le monde dipolomatique, Février, 2011, pp.6-7 / 정기현, pp.24-25)

(83) Le pire massacre de l'histoire industrielle du Bangladesh **n'aura lieu que** dans deux semaines, mais la question de la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textile se pose néanmoins déjà avec insistance.

방글라데시 산업사의 가장 끔찍한 살육이 앞으로 2주 뒤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의류산업에서의 안전과 노동조건 문제는 이미 제기되고 있다.

---

98) 이선경(2013:221)

(Le monde diplomatique, n.711, Juin 2014, p.8 / 고헤식, p.16)

(84) «En 2050, la France **ressemblera** beaucoup plus à un hospice qu'à un gymnase-club.»

“2050년엔 프랑스가 스포츠클럽보다 양로원에 훨씬 가까울 것이다.”

(discours à l'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8  
janvier 2007 / 조은섭)

(85) Non sans raison, ils **feront** une lecture rétroactive de dispositions ne prenant formellement effet que dans deux ans.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공식적으로 2년 뒤에나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을 미리 **따져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Le Monde diplomatique, Décembre 2010, Bernard Cassen, p.18 /  
허보미 역, p.11)

예문 (82)~(85)에는 *en février 2012, dans deux semaines, en 2050*과 같이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쓰여 명시적으로 미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단순미래가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T_0$ 가 아닌 시간부사를 통해 재구성된  $T_i$ 가 위치결정소로서 작용한다.

시간부사가 부재하는 문장일지라도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어휘가 사용되어 시제적 위치결정소로 작용할 수 있다.

(86) Ce n'est donc ni à un hospice ni à une pouponnière que ressemblera la France de demain, mais à un pays où tous les âges **seront également représentés**.

따라서 미래의 프랑스는 양로원도 탁아소도 아닌, 모든 연령층이 공

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Le Monde diplomatique, n.711, juin 2013, p.1 / 조은섭, p.1, p.19)

(87) Les futurs débats politiques internes **s'articuleront** ainsi autour du poids et du rôle des nouveaux parlementaires, y compris au sein des rares cercles démocrates ou ethniques qui disposent désormais d'une base « légale » d'expression après leur participation aux élections (à la différence de la LND).

향후 버마의 정치 논쟁은, (NLD와는 달리) 총선 참여를 통해 “합법적인” 발언권을 획득한 민주세력이나 소수민족 세력을 중심으로, 각 신진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Le Monde diplomatique, Décembre 2010, Renaud Egreteau, p.12 /  
히보미 역, p.16)

(88) Les actifs de 2050 **auront la charge** des retraités de 2050 ; en contrepartie, ils n'auront pas la charge d'épargner pour leur propre retraite et leur propre santé.

가령, 2050년의 경제활동인구가 2050년의 퇴직자들의 연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반면 자신들의 건강이나 퇴직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Le Monde diplomatique, Décembre 2010, Heri Sterdyniak, p.23 /  
정기현 역, p.12)

예문 (86)~(88)에서의 *la France de demain, les futurs débats, les actifs*

*de 2050*이 미래의 시점을 나타내며, 미래에 사행을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간부사와 함께 쓰인 언술이나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어휘가 나타난 언술 모두 사행의 위치결정소가  $T_0$ 가 아닌 시간부사를 통해 재구성된  $T_i$ 가 된다. 따라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의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지표가 언술장면과 단절관계에 놓인다. 이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언술에 드러난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 ‘-르것-’이 우세하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서정수(1978)에 따르면 ‘-르것-’은 ‘-겠-’보다 객관성이 강한 추측 표현이 가능하다. 신문 기사라는 언술 유형의 성격상 객관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한편, 기사에서 단순미래가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르것-’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89) **Comment s’opérera**, par exemple, la division des rôles entre la hiérarchie militaire, jusqu’ici quasi-omnipotente, et son nouvel appareil civil et parlementaire, principalement incarné par le PSUD ?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온 군부와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필두로 한 새로운 민간 및 의원 세력 사이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Renaud Egreteau, 「Junte birmane cherche habits civils」, Le monde diploomatique, Décembre, 2010, p.12 / 허보미 역, p.16)

(90) Par ailleurs, **quelles seront les relations** entre les officiers les plus haut gradés de Tatmadaw - cette génération montante des généraux Myint Aung, Ko Ko, Min Aung Hlaing et Kyaw Swe, tous quinquagénaires - et les anciens, tels les ex-généraux

Thein Sein, Thura Shwe Mann, (Thiha Thura) Tin Maung Myint Oo et Maung Oo, tous mis à la retraite (de gré ou de force) afin de participer au nouveau jeu parlementaire, et tous élus députés ?

뿐만 아니라, 군부 수뇌부(민트 아웅, 코코, 민 아웅 흘라잉, 초오 스웨 등 50대 신진 소장파)와 원로 세력(테인 세인, 투라 슈웨 만, (티하 투라) 틴 아웅 민트 우, 마웅 우 등을 필두로 한 이들 세력은 새로운 의회 무대 참여를 위해 자의든 타의든 군을 퇴역하고, 전원 의원직에 선출됐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Renaud Egreteau, 「Junte birmane cherche habits civils」, Le monde dipolomatique, Décembre, 2010, p.12 / 허보미 역, p.16)

(91) **Comment se régleront** les conflits d'intérêts entre les différents clans, et surtout entre les commandants des treize régions militaires, toujours nommés par le pouvoir central, et les futurs Chief Ministers - élus - des quatorze entités fédérées du pays, dont le découpage territorial ne correspond pas à celui des régions militaires ?

여러 파벌 간 이익 다툼이나 앞으로도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될 13개 군사지역 사령관들의 알력, 그리고 14개 주(주 경계와 군사지역 경계는 서로 다르다)에서 선출될 차기 수석장관(Chief Ministers) 사이의 갈등은 또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Renaud Egreteau, 「Junte birmane cherche habits civils」, Le monde dipolomatique, Décembre, 2010, p.12 / 허보미 역, p.16)

(92) Par ailleurs, **que fera** l'entreprise si le salarié veut rester

alors qu'il n'a plus les capacités correspondant à son poste ou à son salaire ?

그런데 노동자가 자신의 직급이나 봉급에 준하는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더 일하기를 원할 경우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Heri Sterdyniak, 「L'illusion de la retraite à la carte」, Le monde diplomatique, Décembre, 2010, p.23 / 정기현 역, p.12)

(93) La conviction que combat politique et carrière universitaire peuvent ne faire qu'un **résistera-t-elle** aux transformations qui secouent un système scindé entre une minorité de grandes écoles et une masse d'établissements fragilisés par les réformes?

엘리트 교육기관인 소수의 그랑제콜들과 개혁으로 취약해진 다수의 교육기관들로 양분된 교육 시스템을 뒤흔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정치적 투쟁과 대학 연구활동이 결국은 하나라는 신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Pierre Rimbart, 「La pensée critique prisonnière de l'enclos universitaire」, Le monde diplomatique, Janvier, 2011, p.26-27 / 최서연 역, pp.6-7)

(94) **Qui lui succédera?** Dans un Sud-Soudan encore très jeune politiquement et où les appétits pourraient facilement s'aiguiser, ces rivalités sont dangereuses.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의 뒤를 잇게 될까? 정치적 불모지나 다름없는 남수단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치적 야망을 불태울 수 있는 만큼,

권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Gérard Prunier, 「Le régime de Khartoum bousculé par la sécession du Sud」,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2011, pp.16-17 / 허보미, pp.16-17)

의문형으로 나타난 단순미래의 언술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는 주체가 언술행위주체인 기자로부터 공언술행위주체인 독자로 넘어간다. J. Guillemin-Flescher은 “타인의 의지에 의존하는 상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정적인 요소를 구성한다”<sup>99)</sup>고 설명한다. 의문문이라는 문장 유형의 특성상 아직 시공간에 위치결정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적 출현소 구축이 용이해진다. 이 경우에 ‘-르것-’으로 번역되었다.

‘-르것-’으로의 번역만큼이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재로의 번역이다. 월간지 르몽드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에서 발췌한 단순미래가 쓰인 112개의 언술 예문 중 43개의 언술이 현재로 번역되었다. 현재로의 번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한국어의 현재 자체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한국어의 현재는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95) Et on nous promet que, dans un futur proche, il sera **«possible»** d’optimiser nos capacités physiques et psychiques par la manipulation du génome humain.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간게놈 조작을 통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최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Slavoj Zizek, 「Pour sortir de la nasse」, Le monde diplomatique, Novembre, 2010, p.23 / 김계영 역, p.11)

---

99) Guillemin-Flescher(1981:246-247)

(96) Les libéraux, les Verts et la gauche s'accrochent à la suspension de la conscription, devenue très inégalitaire et inefficace militairement (depuis sa réduction à six mois), mais les démocrates-chrétiens (CDU) et les chrétiens bavarois (CSU), qui en ont débattu lors de leurs congrès en octobre et novembre 2010, ont pesé pour le maintien d'un service volontaire civil plus étendu, qui **succèdera** à la conscription à partir de juillet prochain.

자유민주당, 녹색당, 좌파는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이후부터) 이미 군사적 관점에서 불평등하고 비효율적인 징병제 폐지에 찬성한다. 그러나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전당대회 토론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징병제를 **폐지(유예)**하는 대신 기존에 존재하던 대체복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hilippe Leymarie, 「Mais que fait donc l'Allemagne en Afghanistan?」,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2011, pp.6-7 / 정기현, pp.24-25)

(97) Dès janvier 2012, les pouvoirs publics et les assureurs **ne financeront plus** des établissements : ils **achèteront** des actes médicaux, selon un forfait déterminé en fonction du diagnostic (Diagnostic Related Group, DRG).

스위스에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정부와 보험운용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대신 '진단명 기준 환자

군(DRG)에 따른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Michael Rodriguez, 「En Suisse, la santé aux bon soins des assurances」,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2011, pp.4-5 / 허보미, pp.6-7)

위 언술은 단순미래가 현재로 번역된 언술이다. 세 개의 언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적 지표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dans un futur proche, à partir de juillet prochain, dès janvier 2012*가 언술행위 상황과 단절된 가상의 근거지표를 구축하는 지표로서 작용하여 언술에서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현재 시제가 나타나 '가능하다', '폐지하는', '중단하게 된다', '적용한다'로 번역되었다. 이는 한국어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김혜정(1994)는 '-겠-'이나 '-르것-'의 사용보다도 시간부사와 같은 다른 문장 성분이 나타내는 의미에 의해 시간관계가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한다. 위의 예문들의 경우도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에 의해 현재형이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현재 시제로 번역되는 두 번째 경우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는데 추측근거가 제시된 경우이다.

(98) En faisant fond sur l'accessibilité et l'abondance de leurs propres réserves de Mongolie intérieure, qui leur permettent de vendre à bas prix leurs terres rares durant des années, les Chinois asphyxient progressivement les autres producteurs. Lesquels **préféreront appliquer** la loi des avantages comparatifs en abandonnant la filière, via un désinvestissement « compétitif » et des délocalisations vers la Chine.

내몽골의 희토류는 매장량도 풍부할 뿐 아니라 접근성도 뛰어났기 때문에, 중국은 몇 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희토류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점차 다른 생산업자들의 숨통을 조여간다. 기존 사업자들은 ‘경쟁적인’ 투자 중단과 중국으로의 기업 이동을 통해 이 분야를 포기하면서 비교우위의 법칙에 순순히 따른다.

(Olivier Zajec, 「Comment la Chine a gagné la bataille des métaux stratégiques」, Le monde dipolomatique, Novembre, 2010, p.14 / 배영란 역, p.8)

예문 (98)를 살펴보면 주어 *lesquels*은 문맥적으로 한정작용을 받는다. 앞 문장을 참고하여 *lesquels*이 지칭하는 것이 *les autres producteurs*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앞의 문맥이 단순미래로 쓰인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는데 있어 추측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어로는 현재 ‘-이다’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는데 있어 추정 근거가 될 만한 요소들이 문맥 속에 나타나는 경우에 현재 시제로 번역된다. 제4장 1.3에서 3인칭 주어와 단순미래가 함께 나타나는 언술에서 문맥 속에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추측 근거가 나타나는 경우 ‘-르 것-’으로 번역된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99) Grâce à ce « partenariat public-privé », la division des tâches sera plus facile : le rentable au privé, le reste au public. A n'en pas douter, les coûts pour la sécurité sociale **seront** ainsi « mieux maîtrisés ».

이런 ‘민관 파트너십’ 덕분에 역할 분담은 더 용이해졌다. 다시 말해 수익성 있는 의료행위는 민간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식이다. 보건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 덕분에 공공의료보험

예산 관리가 훨씬 용이해진다.

(Anne Gervais et André Grimaldi, 「Hôpital public à vendre」, Le monde dipolomatique, Novembre, 2010, p.21 / 정기현 역, p.14)

위 예문은 *à n'en pas douter*라는 표현과 함께 쓰여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서술연관관계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표지 '-르것-'을 사용하여 '용이해질 것이다'라고 번역하여도 어색함이 없다. 이는 표지 '-르것-'도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미래가 부정의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살펴보겠다.

(100) La migration intérieure a repris son sens habituel et son rythme infernal. Les camps **n'en seront que plus durables**.

따라서 다시 정상적으로 국내 인구이동이 되고 있으며, 속도도 엄청났다. 캠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hristophe Wargny, 「Haïti entre Dieu et ONG」, Le monde dipolomatique, Janvier, 2011, pp.8-9 / 배영란 역, pp.18-19)

(101) Les Tunisiens **n'auront pas raison** de tous ces maux à la fois, mais ils ont soulevé le joug de la fatalité.

물론 튀니지 국민이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을 속박하던 치명적인 굴레를 없애는 데는 성공했다.

(Serge Halimi, 「L'impossible arrive」, Le monde dipolomatique, Février, 2011, p.9 / 김윤형, pp.8-9)

(102) Dans la première éventualité, le chemin sera parsemé d'embûches.

그들이 첫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한다해도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니다.

(Hicham Ben Abdallah El Alaoui, 「Tunisie, les éclaireurs」,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2011, p.1, pp.10-11 / 김계형, p.2, pp.8-9)

제2장 1.2에서 J. -J. Franckel(1984)에 의해 단순미래는 본질적이고 통사론적인 방법으로  $T_0$ 에 사행의 긍정 항  $p$ 와 부정 항  $p'$ 을 도입하고,  $T_0$ 에 대해 단절된 위치결정소를 나타내는  $T_1$ 에서 두 가치 중 하나의 가치를 선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긍정 항인  $p$ 를 선택하는 것은 부정 항  $p'$ 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단순미래가 부정으로 나타나는 경우, 부정 항  $p'$ 을 선택하는 것은 긍정 항  $p$ 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작용한다. 즉 단순미래가 부정을 내포하는 것은  $p$ 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단지  $p'$ 을 선택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sup>100)</sup> 이처럼 부정을 내포하는 경우에 단순미래가 가진  $p'$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언술행위주체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예문 (100)에서 튀니지 국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해결할 수 없을지는 언어 외적인 사실적 측면에서 알 수 없지만, 언술행위주체는 부정의 가치  $p'$ , 즉 해결할 수 없다는 가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지기를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는 현재로 번역되었다. 현재로 쓰인 경우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언술들 또한 ‘-르것-’과 ‘-겠-’으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다. 예문 (101)을 ‘캠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

---

100) J. -J. Franckel(1984)

다'로, (101)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102)을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순미래가 갖는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를 나타내는 가치가 한국어 표지 '-겠-'과 '-르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시제로 번역되는 것은 사행의 유형이 être나 avoir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2.3. 역사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나타내는데 단순미래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역사서나 전기 또는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들에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것이 그 이유이다. P. Imbs(1960:46-47)는 이를 “역사가의 미래” 또는 “예측의 미래”라고 나타내었고, 역사가의 미래는 단순미래의 시간적 용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발췌한 문헌에서 역사적 미래가 나타난 언술들을 살펴보자. 크게 3가지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과거 어느 시점을 근거지표로 하여 그 나중의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미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단순미래가 언술의 사건적인 연속을 구축한다.

(103) Ceux qui bientôt **deviendront** «les cinq» ont en réalité pénétré les organisations armées de l'exil anticastriste, tout comme leur vaisseau-amiral, la Fondation nationale cubano-américaine(FNCA), créée par Ronald Reagan en 1981. Ils ont informé la Havane des tentatives d'infiltration dans l'île et des attentats en préparation.

곧 '5인조'라고 불리게 된 이들은 실제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창립한 재미쿠바인재단(CANF)을 주축으로 하는 반 카스트

로 망명무장조직에 침투해, 이들이 벌이는 쿠바 침투 시도 및 테러 준비 상황을 아바나의 쿠바 정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Maurice Lemoine, 「Cinq Cubains à la une」, Le monde diplomatique, Novembre, 2010, p.11 / 최서연, p.6)

(104) Au fait également que, depuis Philippe Auguste, les fils puînés du monarque, bien que privés de l'onction du sacre, **seront** eux aussi **ensevelis** dans la nécropole de Saint-Denis, où seuls reposaient jusqu'à présent des dépouilles de rois de de reines.

또한 존엄왕 필리프 이래 왕가의 차남들은 비록 도유받을 권리는 상실하였을지라도 지금껏 왕과 왕비의 유해만이 안치되었던 생드니 수도원 묘지에 **안장되었다**.

(Georges Duby(1985). *Le dimanche de Bouvine*, p.46 / 최생열 역(2002). 『부빈의 일요일』, p.37)

예문 (103)에서 근거지표가 되는 상황은 ‘반 카스트로 망명무장조직에 침투했다*ceux (...) ont pénétré les organisation armées de l'exil anticastriste*’이다. 이 가상의 상황적 근거지표에 대한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 즉 ‘5인조’라고 불리게 된 것이 ‘무장조직에 침투한 것’ 이후의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해 관계절에 단순미래를 사용하였다. 예문 (104)에서도 ‘왕과 왕비가 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나중에 위치하므로 단순미래가 사용되었다.

(105) Étonnante richesse qui se résumerait presque dans ces années 1636-1637, où, à l'heure même où l'Espagnol envahit à

nouveau la France et de Corbie menace Paris, Corneille fait jouer Le Cid et Descartes publie son Discours de la Méthode pour bien conduire sa raison et chercher la vérité dans les sciences, où Saint-Cyran, directeur de conscience à Port-Royal, se heurte au cardinal de Richelieu, qui, peu après, le **fera emprionner** : obscurs débuts de cette extraordinaire aventure janséniste, qui échauffa tout Paris pendant plus de vingt ans.

에스파냐 인들이 다시금 프랑스를 침공하여 코르비로부터 파리를 위협했던 순간에 코르네유는 「르 시드」를 상영했으며 데카르트가 「이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모든 학문들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 서설」을 간행했고 또 포르-루아얄의 신앙 지도자였던 생-시랑이 리슐리외 추기경과 충돌했던(그는 얼마 후에 리슐리외에 의해서 투옥되었다) 것이 바로 그 2년간이었다. 이 2년간은 또 앞으로 20년 이상 파리 전체를 흥분시킬 장세니스트들의 비상한 모험이 조용히 시작되었던 시기였다.

(Georges Duby(1976). *Histoire de la civilisation française*, XVIIIe-XXe siècle, p.8 / 김현일 역(1995). 『프랑스 문명사』 17세기-20세기, p.416)

예문 (105)에서 ‘생-시랑이 리슐리외 추기경과 충돌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는 (...) 투옥되었다’라는 서술연관관계는 유효화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므로 단순미래로 표현되었다.

(106) En 1995, le secrétaire général de la Fesci n’est autre que M. Guillaume Soro, qui **animera** le rébellion armée(2002-2006), avant de devenir son premier ministre en 2007, en vertu des

accords de paix de Ouagadougou (2006), puis celui de M. Ouattara au lendemain de la présidentielle contestée de 2010.

1995년 FESCI의 사무총장에 기욤 소로가 내정됐다. 소로는 훗날 반군운동(2006년)을 이끄는 인물로, 2007년에는 와가두구 평화협정에 의해 그바그보의 총리로, 2010년 부정선거 이후에는 와타라의 총리로 임명된다.

(Vladimir Cagnolari,

「Côte d'Ivoire, les héritiers maudits de Félix Houphouët-Boigny」,  
Le monde diplomatique, Janvier, 2011, pp.14-15 / 허보미 역, pp.16-17)

(107) De fait les héros capables de désarçonner allégrement leurs adversaires **viendront** tous désormais des régions où les tournois fleurissent - ce qui sans doute incita Richard Coeur de Lion à cesser de les interdire en Angleterre.

실제 이후로 적을 쉽사리 낙마시킬 수 있었던 영웅들은 마상 시합이 번창했던 지역 출신들이었다. 또한 분명 바로 이와 동일한 이유로 사자심왕 리처드는 영국에서 마상 시합의 중지를 철회하였다.

(Georges Duby(1985). *Le dimanche de Bouvine*, p.149 / 최생열 역(2002). 『부빈의 일요일』, p.118-119)

예문 (106)에서 언술이 좌표결정된 상황은 1995년이다. 1995년이 가상의 시간적 근거지표로 설정되어 ‘기욤 소로가 반군을 이끄는’ 2002년부터 2006년은 미래의 일이 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미래가 쓰여 사건적인 전후 관계를 구축한다. 이 경우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어 번역문에 원문에는 없는 ‘훗날’이라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예문 (107)에서도

‘이후로’라는 사건적 연속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다. 프랑스어 원문에는 단순미래를 사용함으로써 사건적 전후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에서는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언술이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로만 번역되어 프랑스어 언술에 내포된 사건의 전후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부사 ‘훗날’과 ‘이후로’가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미래가 구축하는 사건적 연속의 의미가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문맥적으로 구축됨을 확인할 수 있다.

(108) La tempête **finira par s’apaiser**. En mars 1988, la Chine signe le traité de non-prolifération nucléaire (TNP) pour confirmer qu’elle n’a pas d’ambition dans ce domaine.

하지만 1988년 3월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며 핵 분야에 야망이 없음을 확인시키자 폭풍이 진정됐다.

(Alain Gresh, 「Beyrouth dans les rets du Tribunal」,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2011, p.8 / 조은섭, pp.22-23)

(109) La révolte éclata en mai 1993 ; elle **durera** dix-neuf ans.

1983년 5월 마침내 반정부 저항이 발발한다. 이후 19년간 수단 내전이 지속된다.

(Gérard Prunier, 「Le régime de Khartoum bousculé par la sécession du sud」,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2011, pp.16-17 / 허보미, pp.16-17)

위의 두 예문도 다른 예문들과 같은 이유로 사건적인 연속을 구축하며 단순미래가 사용되었다. 예문 (108)에서는 *en mars 1988*로, 예문 (109)에서는 *en mai 1993*으로 명백한 과거 시간을 지칭하는 시간적 근거지표가 쓰였다.

번역문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맥적으로 혹은 부사를 사용하여 근거가 되는 시간보다 나중에 좌표결정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다. 예문 (108)에서는 두 개의 독립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확인시키자 폭풍이 진정됐다’는 인과관계가 문맥적으로 구축되어 사건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었다. 예문 (109)에서는 ‘이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의 연속을 나타내었다. 정리해보면 단순미래가 사용된 언술들은 공통적으로 과거 출현소가 문맥적으로 구축되어있거나, 지나간 사건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연대추정 datation에 의해 구축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단순미래가 사용되어 사건적인 연속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는 지나간 사건을 설명 혹은 묘사하는데 있어서 미래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 과거의 사건은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미래가 쓰인 언술이 나타내고 있는 사건의 연속에 나타나는 전후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맥적으로 인과관계를 구축하거나, 시간적으로 후에 좌표결정되도록 하는 시간부사를 사용한다. 상황이 과거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화자에 의해 과거 상황에서 가상의 시간적 근거지표에 대한 미래처럼 재구성될 때 단순미래가 나타난다

역사적 미래의 두 번째 특징은 제3장의 1.2에서 언급한 바 있는 ‘회상 Rétrospection’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술자는 가상의 상황에 놓인 채 좌표결정작용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서술자의 언술행위적 책임지기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언술행위주체에 의한 과거의 재해석이 수반될 수 있다.

(110) Cette vision politique et juridique de la nation **ne survivra pas** aux premières anné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Elle **sera balayée** par la conception de Johann Gottfried Herder, l’ennemi de Rousseau et de Voltaire, critique de Kant et fondateur du nationalisme idéologique : selon ce grand penseur allemand, la

nation est un phénomène naturel, un organisme vivant doté d'une âme et d'un génie propres, qui s'expriment dans la langue.

이 같은 정치적·법률적 국가관은 프랑스 혁명 초기에 살아남지 못하고, 루소와 볼테르의 맞수였던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의 개념으로 무너진다. 칸트를 비판하고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를 창시한 이 위대한 독일 사상가 헤르더에 따르면, 국가는 하나의 자연 현상이며, 언어로써 표현되는 특유의 영혼과 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Zeev Sternhell, 「Ce qui unit les anti-lumières」, Le monde diploomatique, Décembre, 2010, p.3 / 배영란 역, p.3)

위 언술 예문은 단순미래가 '프랑스 혁명 초기'라는 지나간 사건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지시어와 함께 나타나 혁명 초기에 국가관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서술자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가 표현되었다.

역사적 미래의 마지막 특징은 역사가의 평가적 판단이 언술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책임지기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언술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에 대하여 평가적인 판단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언술행위주체에 대한 서술연관관계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111) Le 14 septembre, vêtements fripés, joues bleuies par la barbe, chevelures en broussaille, on les propulse devant une nuée de photographes. Ce sont ces «tranches» de truands qui **apparaîtront** dans la presse dès le lendemain.

9월 14일, 옷은 구겨지고 뺨은 수염으로 거뭇해졌으며 머리는 뒤형 클어진 채, 이들은 벌떼같이 모인 기자들 앞으로 내몰렸다. 이튿날부터 이들 악당의 '낫짝'이 언론을 장식했다.

(Maurice Lemoine, 「Cinq Cubains à la une」, Le monde diplomatique, novembre, 2010, p.11 / 최서연, p.6)

(112) C'est sous Deng Xiaoping, avec le « Programme 863 » de 1986, que Pékin opte pour une stratégie de long terme visant à développer une maîtrise pérenne de l'exploitation des terres rares, de l'extraction à la fabrication de produits semi-finis, en passant par la séparation et la transformation des matériaux de base. L'action du professeur Xu Guangxian, le « père des terres rares chinoises », **sera décisive.**

그러다 1986년 '863 계획'을 내세운 덩샤오핑의 지휘 아래, 중국은 기초 재료의 분리 및 가공을 비롯해 채굴에서 반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희토류 자원 개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을 채택했다. 이어 '중국 희토류의 아버지' 쑤광시안 교수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

(Olivier Zajec, 「Comment la chine a gagné la bataille des métaux stratégiques」, Le monde diplomatique, novembre, 2010, p.14 / 배영란, p.8)

(113) Les Etats-Unis calment Israël. Mais les Saoudiens **n'oublieront pas** que, dans un moment crucial, la Chine s'est tenue à leurs côtés. Et Pékin **sera reconnaissant** à Riyad d'avoir refusé l'inspection par Washington de ses fusées, un matériel « sensible ».

미국은 이스라엘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사우디는 아주 중요한 시점

에 중국이 자신의 편을 들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중국은 미국의 ‘민감한’ 자국 로켓 사찰을 거부해준 사우디에 감사했다.

(Alain Gresh, 「Beyrouth dans les rets du tribunal」, Le monde diploomatique, Février, 2011, p.8 / 조은섭, pp.22-23)

위 예문들은 서술자의 사건에 대한 평가적인 판단이 나타나있는 언술이다. 예문 (111)에서 *le lendemain*이 쓰였다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9월 14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을 의미한다. 즉 시간적 근거지표는 9월 14일이고 시제적으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단순미래가 사용되었다. 이 언술에서 하나 더 주목해볼 만한 것은 서술자가 ‘악당

(114) La bataille n'est pas la guerre. **J'oserai même dire** que c'en est l'invers : la bataille est une procédure de paix.

바타유는 게르가 아니다. 나는 감히 그 **반대라고 말하고 싶다**. 바타유는 평화의 한 절차에 속한다.

(Georges Duby(1985). *Le dimanche de Bouvine*, p.190 / 최생열 역(2002). 『부빈의 일요일』, p.166)

위 언술은 주어 je를 사용하여 화자가 직접적으로 언술에 개입하고 있다.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사용되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낸다.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저자의 주관성을 드러내주는 보조형사 ‘싶다’를 사용하여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과거와 단순미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언술행위주체가 언술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가 언술에 나타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단순과거는 담화 상황에서 벗어나 단절된 가상의 담화상황에 위치결정된다. 언술행위상황에 대해 단절된 서술연관관계를 구축하므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게 한다. 반면, 단순미래는 언술행위주체가 가상의 언술행위상황에 위치하여 좌표결정되므로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언술에 서술자의 주관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는 과거 혹은 현재로 번역되기 때문에 단순미래가 갖는 판단의 가치가 사라지며 보다 객관성을 갖게 된다. 한국어 번역문에서 서술자의 책임지거나 평가적 판단은 어휘나 문맥을 통해서 약하게 남아있는 정도이다.

## 2.4. 법조문

A. Celle(1997)에 따르면 법조문에서 단순미래가 쓰인 언술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법조문에는 대화상황이 존재하지 않아 공언술행위주체에 대한 이타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법조문 언술에서는 동작주의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탈동작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법조문이

라는 언술 유형이 갖는 특징은 한국어 번역에 있어도 나타난다. 표지 ‘-겠-’, ‘-르겠-’으로의 번역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로 번역된다. 분석한 ‘EU 조약 (Traité d’Union européenne)’에서 단순미래로 표현된 26개의 언술 중 24개의 언술이 현재로 번역되었고, 단 2개의 언술만이 종속절에서 ‘-르-’의 형태로 번역되었다.

법조문에서 쓰인 단순미래도 다른 언술 유형에서와 같이 시간적인 한정작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재가 갖는 비한정성을 보완하고, 미래출현소를 제시하면서 텍스트를 구조화한다.<sup>101)</sup>

(115) Tout citoyen de l’Union résidant dans un État membre dont il n’est pas ressortissant a le droit de vote et d’éligibilité aux élections municipales (...). Ce droit **sera exercé** sous réserve des modalités arrêtées par le Conseil, statuant conformément à une procédure législative spéciale et après consultation du Parlement européen;

국적 소유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는 모든 연합시민은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이 권리는 이사회가 특별 입법 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전원일치로 정하는 세칙에 따라 **행사된다**.

(Traité d’Union européenne, Deuxième partie, Article 22 / 채영복)

(116) La politique de sécurité et de défense commune inclut la définition progressive d’une politique de défense commune de l’Union. Elle **conduira** à une défense commune, dès lors que le Conseil européen, statuant à l’unanimité, en aura décidé ainsi.

---

101) A. Celle (1997:125)

공동안보방위정책은 연합의 공동방위정책의 점진적 구상을 포함한다. 이 점진적 정의는 유럽이사회가 전원 일치로 결정할 때 공동방위로 이어진다.

(Traité d'Union européenne, Titre V. Chapitre 2, Section 2, Article 42 / 채영복)

(117) Les dispositions transitoires relatives à la définition de la majorité qualifiée qui son applicables jusqu'au 31 octobre 2014, ainsi que celle qui **seront applicables** entre le 1 novembre 2014 et le 31 mars 2017, sont fixées par le protocole sur les dispositions transitoires.

2014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가중다수결의 정의에 관한 경과규정 및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은 경과규정에 관한 의정서에서 정한다.

(Traité d'Union européenne, Première partie, Titre II, Article 16 / 채영복)

예문 (115)는 프랑스어에서 현재와 단순미래가 동시에 나타나는 언술이다. 현재로 표현된 첫 번째 문장은 언술행위순간에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되고, 언술행위주체가 주어에 속성을 부여함에 따른 총칭적인 해석이 나타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단순미래로 쓰여 언술행위순간인 '모든 연합시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는' 순간과 단절관계를 갖는  $T_2 @ T_0$ 에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된다는. '권리가 행사되는 것'은 아직 시공간적으로 위치결정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미래출현소를 제시하며 시간적 한정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순미래가 쓰였다. 예문 (116)에서도 '유럽이사회가 전원 일치로 결정

할 때'라는 언술행위순간과 단절을 나타내는 상황적 지표를 동반하면서 미래 출현소를 구축하는 단순미래가 쓰였다. 예문 (117)에서도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와 함께 나타나 언술행위 순간과 단절을 나타내고 미래 출현소를 구축한다. 위 세 개의 언술 모두 한국어 번역에서 현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117)에서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와 함께 쓰여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를 갖는 표지로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예문 (115)와 (116)은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가 언술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위 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미래가 언술행위순간과 단절관계를 갖는 서술연관관계에서 출현소를 구축하며 시간적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다른 언술 유형의 텍스트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었다. 다른 언술 유형과 구분되는 법조문의 특징은 공언술행위주체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이타성 *altérité*<sup>102)</sup>을 갖는 것이다.<sup>103)</sup> 즉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는데 있어 공언술행위주체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타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법조문에는 대화상황 *interlocution*이 존재하지 않고 법조문이라는 언술 유형의 특성상 법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공언술행위주체는 따라야만 할 뿐 거부하거나 변경

102) A. Culioli에 의하면, 하나의 출현소 *p*를 다른 출현소 *p'*과 동일시 하는 연산 작용이 나타날 때, 두 출현소 *p*과 *p'*은 각각의 출현소가 서로 다른 상황을 통해 확인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각각의 출현소가 시간적으로 좌표결정되어 두 출현소가 서로 서로 구별됨을 의미한다. 이 때 두 출현소 간에 상황적으로 이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선경, 1994:183 재인용) 이타성이 약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p*를 목표로만 하지 *p'*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p'*으로 표기된 언어학적 보집합 *complémentaire linguistique*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보집합의 부재를 상정한다. 이를 '약하게 유일한 *faiblement unique*'이라고 명명하고, '하나의 노선 *un chemin sans plus*'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다른 노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노선만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타성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유일한 하나의 노선 *un chemin et un seul*'만이 존재할 경우로 다른 가치의 가능성이 제거된다. 언어학적 보집합을 구축하고, 그 보집합이 유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보집합의 부재를 상정한다. 두 개의 노선을 일단 고려해 본 후, 그 중 유효하지 않은 가치를 제거하여 보집합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게 되어, 오직 하나의 가치만을 갖게 된다. (이선경, 2014:189 재인용)

103) A. Celle(1997:127)

할 수 없다. 상황적 문맥에 의해 의무의 양태modalité déontique가 나타나게 된다.

(118) Les États membres qui sont aussi membre du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se concerteront** et **tiendront** les autres États membres ainsi que le haut représentant pleinement informé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인 회원국은 상호 조정하고, 기타 회원국 및 고위대표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Troisième partie, Titre II, Chapitre 3, Article 34 / 채영복)

위 언술은 대화상황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공언술행위주체와 상관없이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한다. 법조문에 적힌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 '회원국은 상호 조정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무의 양태가 문맥 속에 내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 언술행위주체가 목표로 한 사건의 실현화가 고려될 뿐, 공언술행위주체는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어 번역에 있어 표지 '-르것-' 또는 '-겠-'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만이 나타난다.

법조문에 나타나 있는 단순미래의 또 다른 특징은 동작주의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C<sub>0</sub>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위치할 뿐 동작주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sup>104)</sup>

(119) Le présent traité **entrera en vigueur** le 1er janvier 1993, à condition que tous les instruments de ratification aient été déposés, ou, à défaut, le premier jour du mois suivant le dépôt de

---

104) A. Celle(1997:130-131)

l'instrument de ratification de l'État signataire qui procédera le dernier à cette formalité.

본 조약은 모든 비준서가 기탁된 경우에는 1993년 1월 1일에, 기타 경우에는 마지막 비준서가 기탁된 다음 달 1일에 **발효한다**.

(Traité d'Union européenne, TitreVI, Article 54 / 채영복)

위 언술 예문의 주어 '조약*le présent traité*'은 동작주가 아니다. 언술에서 '조약을 발효시키는' 주체인 동작주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작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A. Culioli(1985:106)은 동작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 상태*état*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할 때 동작성*agentité*이 나타난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지 않을 때 동작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 이상 변화*transformation*가 행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변화의 동작주가 존재하지 않는다.<sup>105)</sup>

위 예문에서 '조약을 발효하는' 주체인 동작주가 존재하지만 이는 서술연관관계 속에 감춰져있다. 탈동작성*désagentivisation*이 나타난다. 단순미래는 동작성이 없으면서 사건의 존재를 술어적으로 서술하는 술어작용*prédication*이 가능하다.

C<sub>0</sub>가 동작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동태로 나타나는 언술에서 자주 나타난다.

(120) Le présent traité (...) **sera déposé** dans les archives d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italienne.

(...) 본 조약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공문서 보관소에 **기탁된다**.

(Traité d'Union européenne, TitreVI, Article 55 / 채영복)

---

105) A. Celle (1997:129) 재인용

(121) Tout citoyen de l'Union et tout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résidant ou ayant son siège statutaire dans un État membre a un droit d'accès aux documents des institutions, organes et organismes de l'Union, quel que soit leur support, sous réserve des principes et des conditions qui **seront fixés** conformément au présent paragraphe.

연합시민, 나아가 회원국에 거소 또는 정관상의 소재지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누구든지 분항에 따라 **정해진** 원칙 및 조건의 유보 하에 연합의 기관, 조직 및 기타부서의 문서는 그 형태를 묻지 않고 그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Première partie, Titre II, Article 15 / 채영복)

(122) Dans les conditions qui **seront déterminé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322, les crédits, autres que ceux relatifs aux dépenses de personnel, qui seront inutilisés à la fin de l'exercice budgétaire pourront faire l'objet d'un report qui sera limité au seul exercice suivant.

제322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제조건에 따라 인건비 이외의 지출에 배당된 자금은 예산의 집행기간의 종료까지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재정년도에 한해 이월하는 것이 허용된다.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Sixième partie, Titre II, Article 316 / 채영복)

위 예문들을 살펴보면  $C_0$ 를 나타내지 않는 동작주는 수동태로 나타난 언

술에서 주제화되지 않는다.

수동태로 서술하는 것은 서술연관관계의 시작점을 본래 동작주 도착점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서술연관관계의 단순한 도치가 아니다. 능동의 시작점을 구축하는 동작주가 중심적인 서술연관관계의 작용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sup>106)</sup>

위 언술 예문들에서 ‘조약을 기탁하고’, ‘원칙을 정하고’, ‘조건을 규정하는’ 동작주가 명확하지 않거나 나타나있지 않다. 동작주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관여하지 않고, 수동태로 나타나는 언술에서 C<sub>0</sub>가 나타내는 명사의 상태의 변화만이 고려된다. 특히 예문 (121)와 (122)에서 ‘정해진’, ‘규정된’은 속성을 부여하는 특성이 강조되며 비동작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수동태의 언술은 한국어 번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래 한국어 문법에는 주어가 생략된 언술이 많아 동작주가 나타나지 않는 언술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조문에 나타나는 단순미래는 한국어의 현재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르-’으로 번역된 다음 예문 (123)에서의 언술과 비교된 것을 볼 수 있다.

(123) Dans l'exercice des missions qui lui sont confiées au titre du présent chapitre, la Commission s'inspire : b) de l'évolution des conditions de concurrence à l'intérieur de l'Union, dans la mesure où cette évolution **aura pour effet d'accroître** la force compétitive des entreprises ;

위원회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지도원칙에 따라야 한다. (b) 기업의 경쟁력 향상

---

106) M. -L. Groussier (1981:50) (A. Celle, 1997:130, 재인용)

을 가져올 연합 내 경쟁조건의 육성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Troisième partie, Titre II, Article 32 / 채영복)

위 언술 예문은 비단언을 내포하고 있는 종속절이다. 비한정적인 관계절이나 보어절에서 언술행위주체에 대한 좌표결정작용이 나타나는데, 비한정적 관계절은 언술행위주체의 해석과 상응하여 단언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리하여 '-르'로 번역되었다. 이는 현재로 번역된 아래 예문과의 비교를 통해 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

(124) Les dispositions transitoires relatives à la définition de la majorité qualifiée qui son applicables jusqu'au 31 octobre 2014, ainsi que celle qui **seront applicables** entre le 1 novembre 2014 et le 31 mars 2017, sont fixées par le protocole sur les dispositions transitoires.

2014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가중다수결의 정의에 관한 경과규정 및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은 경과규정에 관한 의정서에서 정한다.

(Traité d'Union européenne, Première partie, Titre II, Article 16 / 채영복)

위 언술도 '경과규정 *les dispositions transitoires*'을 수식하는 종속절에 단순미래가 쓰인 경우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적용되는'이라는 현재로 번역되었다. 만약 예문 (123)과 같이 표지 '-르-'을 사용하여 '적용될'로 번역할 경우,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 가치가 존재하게 된다. 단순미래의 경우에는 p와 p'을 주행하고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는데 있

어 p'을 제외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p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반면 한국어 표지 '-르-'은 p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p'을 완전히 제외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조문에 명시되어있는 서술연관관계는 목표가 된 사건의 실현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p'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적용될'이라는 번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예문 (123)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은 법조문에 명시된 조항이 아닌 언술행위주체의 가치가 개입된 내용이므로 '-르-'으로의 번역이 가능한 것이다.

## 2.5. 일기예보

프랑스의 일기예보에는 단순미래가 쓰일 수 있다. 일기예보에 쓰인 단순미래의 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단순미래가 나타난 언술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언술장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일기예보도 언술행위주체인 기상통보관이 예보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지표, 즉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는 언술장면에 나타나있지 않다. 기상통보관은 위성사진, 기압배치, 구름의 이동 등을 근거로 날씨를 예측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언술장면과는 단절된 장면을 구축한다. 또한 기상통보관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한국어로는 일기예보에 '-겠-'이 나타난다. 우리는 앞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표현은 '-르것-'으로 번역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일기예보도 기상통보관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추측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르것-'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남순(1995)에 따르면 일기예보의 기상통보관의 근거는 통보관 자신에게 믿을만한 것이고, 그 판단이 어디까지나 기상통보관 자신의 해석에 의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겠-'으로 나타난다. 또는, 안명철(1983)은 '-겠-'에 의해 미래 상황이 진술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는 경우

라고 보았는데,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통보관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판단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겠-’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다. 최정진(2012)과 같이 ‘-겠-’이 갖고 있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설명’의 용법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일기예보라는 ‘말화 내용 상황이 설명 대상으로서 정보적 가치를 지닌 미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25) Les pressions **remonteront** sur la France. Cela **apportera** un temps un peu plus stable, cependant des nuages **se développeront** encore fréquemment sur le pays, en alternance avec des éclaircies plus ou moins larges. Des averses **menaceront** ou outre ici et là, notamment du Nord à l’Est ou encore dans le Sud-Ouest et l’Auvergne, voire sur l’arrière-pays Azuréen. Mistral et tramontane **souffleront** encore assez forts.

(météo & jeux, les echos, 16-18 août 2014)

(126)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나, 동해안은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습니다**.

(2015년 05월 01일 금요일 중앙일보 날씨)

### 3. 문장 구조별 분석

문장 구조에 따라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한국어 표지가 갖는 가치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언술행위순간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si절과 quand

절이 단순미래와 함께 쓰인 언술의 번역에 있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3.1. Si p, q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si가 쓰인 조건절의 주절에 단순미래가 나타나는 언술을 찾아볼 수 있다. si 조건절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언술행위 순간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단순미래의 가치가 보다 잘 나타난다.

(127) L'influence du mouvement tunisien sur le reste du monde arabe dépendra de sa capacité à démocratiser le pays. Si la démocratie s'organise, on **assistera** vraisemblablement à sa diffusion, en particulier au Maghreb. Les revendications populaires s'accentueront avec, à la clé, l'exigence de pluralisme et de participation. S'il échoue, les régimes autoritaires **s'en trouveront** confortés, au désespoir des populations : la plupart des régimes arabes préfèrent sans doute la seconde option, même si elle entraîne le chaos.

튀니지의 혁명이 인근 아랍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튀니지 민주주의적 개혁 능력에 달렸다. 만약 튀니지에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분명 주변 지역, 특히 마그레브 지역(아프리카 북서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수 정당 체제와 정치 참여 개방 등의 요구가 쇄도할 것이다. 반면 튀니지의 민주주의가 실패할 경우 권위주의 체제는 더욱 강고해지고 민중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당연히 대부분의 아랍 정권들은 후자의 경우를 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혼란을 무릅쓰고 말이다.

(Hicham Ben Abdallah El Alaoui, 「Tunisie, les éclaireurs」, Le monde dipolomatique, février, p.1, pp.10-11 / 김계형, p.2, pp.8-9)

위 언술에서 단순미래로 나타난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 되기 위해서는 si 절의 사행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튀니지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민주주의가 실패한’ 후에야 주절에서 단순미래로 나타난 사행이 유효화된다. 즉, ‘영향을 미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 발화 상황은 아직 튀니지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지도, 실패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주절의 사행의 실현과는 단절된다.

단순미래와 함께 나타나는 si 조건절이 갖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J. -J. Franckel(1984)이 단순미래와 근접미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예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128) Si ça continue, on appellera le médecin.

(129) Si ça continue, on va appeler le médecin.

(J. -J. Franckel(1984), Futur simple et futur proche, Le français dans le monde, 182, p.67)

J. -J. Franckel은 두 언술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단순미래가 쓰인 첫 번째 언술은 언술행위 순간과 단절을 나타내므로 si절에 쓰인 *ça*도 현재 언술행위 상황과는 단절된 이전에 나타난 어떤 증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근접미래가 쓰인 두 번째 언술은 언술행위 순간과의 인접성을 나타내므로 si절에 쓰인 *ça*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증세로 보았다. 단순미래가 쓰인 si 조건절은 이처럼 언술행위 상황과 인접성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역할을 한다.<sup>107)</sup>

---

107) 박윤미(1999), ‘불어조건문 si p, q’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Rieux reconnut que, dans un sens, cela était vrai, il n'avait pas voulu en tenir compte.

— Ah ! je vois, fit Rambert, vous allez parler de service public. Mais le bien public est fait du bonheur de chacun.

— Allons, dit le docteur qui semblait sortir d'une distraction, il y a cela et il y a autre chose. Il ne faut pas juger. Mais vous avez tort de vous fâcher. Si vous pouvez vous tirer de cette affaire, j'en **serai** profondément **heureux**. Simplement, il y a des choses que ma fonction m'interdit.

리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 알겠어요.” 랑베르가 말했다. “공적인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공공복지도 개개인의 행복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글쎄.” 의사는 탄 생각을 하다가 깨어난 듯이 말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지요. 속단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내시는 것은 온당치가 못합니다. 만약 선생이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단지 나오시는 직무상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니까요.”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위 언술 예문에서 의사는 지금 Rambert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 상태이다. 따라서 Rambert가 ‘난관에서 벗어날’ 일은 발화 순간에는 구축되지 않는다. 즉, 발화 상황과의 인접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si 조건절은 언술행위 순간과의 인접성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 p, q] 구문에서 p절에 단순미래가 사용된 언술의 특징은 언술행위 순간과의 단절

이 나타나고, si절이 가정의 의미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문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용하여 주로 번역된다. 추측의 의미가치를 갖는 ‘-르것-’으로 번역이 나타난다.

(130) Si la démocratie s’organise, on **assistera** vraisemblablement à sa diffusion, en particulier au Maghreb.

만약 튀니지에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분명 주변 지역, 특히 마그레브 지역(아프리카 북서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Hicham Ben Abdallah El Alaoui, 「Tunisie, les éclaireurs」,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2011, p.1, pp.10-11 / 김계형, p.2, pp.8-9)

(131) S’il échoue, les régimes autoritaires **s’en trouveront** confortés, au désespoir des populations :

반면 튀니지의 민주주의가 실패할 경우 권위주의 체제는 더욱 강고해지고 민중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Hicham Ben Abdallah El Alaoui, 「Tunisie, les éclaireurs」,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2011, p.1, pp.10-11 / 김계형, p.2, pp.8-9)

(93) Par ailleurs, que **fera** l’entreprise si le salarié veut rester alors qu’il n’a plus les capacités correspondant à son poste ou à son salaire ?

그런데 노동자가 자신의 직급이나 봉급에 준하는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더 일하기를 원할 경우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Henri Sterdyniak, 「L'illusion de la retraite à la carte」, Le Monde diplomatique, Décembre, 2010, p.23 / 정기현, p.12)

(132) Si l'épidémie s'étend, la morale **s'élargira** aussi.

질병이 확대되면 도덕도 역시 **확장**해질 것이다.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1인칭 주어에서 상태 동사와 함께 쓰인 경우는 '-겠-'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겠-'은 1인칭 주어와 상태 동사와 함께 쓰인 경우 '추측'의 의미 가치를 갖는다.<sup>108)</sup>

(133) Si nous les laissons faire, ils **périront** et nous avec eux.

만약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가는 그들은 결국 **손들고 말 거**에요. 우리도 함께 **죽게** 되겠죠.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20) Si vous pouvez vous tirer de cette affaire, j'en **serai** profondément **heureux**.

만약 선생이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43) Si je n'y suis pas, tu **iras** directement chez eux.

혹 내가 안오거든, 자네가 곧장 **저**애들 집으로 **찾아가**게나.

---

108) 서정수(1977), 김혜정(1994)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41) Nous **sortirons** ensemble, si vous le voulez bien.

“괜찮으시다면 같이 **나가지죠.**”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반면 아래 언술 예문 (134)의 번역문은 현재형으로 나타난다. 문장에 언술의 추측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술행위주체는 언술의 유효화에 있어 보다 책임지기를 나타내며 번역문에서는 현재형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 언술 예문을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인 ‘-겠-’이나 ‘-르것-’을 사용하여 ‘불충분하겠습니다’ 또는 ‘불충분할 것입니다’로 번역하여도 어색하지 않다.

(134) C’est à peine assez pour l’état présent de la maladie. Ce **sera insuffisant** si l’épidémie s’étend.

그런데 그 인원으로는 현재의 병세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병이 더 퍼지면 그 인원으로는 **불충분합니다.**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결론적으로 si절은 언술행위순간과 인접성이 없는 ‘가정’을 나타내고, 이 경우 대부분의 언술이 ‘-르것-’으로 번역되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 3.2. Quand p, q

시간을 나타내는 quand 종속절이 단순미래와 함께 쓰일 때 나타나는 특징은 quand 종속절 자체가 근거지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서술연

관관계의 근거지표가 된다.

(135) Il se propose d'y puiser quand il le **jugera** bon et de les utiliser comme il lui plaira.

그는 적절하다고 **판달될 때는** 그것들을 기록의 토대로 삼아 마음내키는 대로 이용할 생각이다.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42) Tout ira mieux quand tu **reviendras**.

“당신이 돌아올 때는 모든 일이 다 좋게 될 거요.”

(La peste / 김화영, 《페스트》, 책세상, 2009)

(136) Quand le dernier abri **sera terminé**, le premier sera hors d'usage... D'autant que le nombre de «campeurs» ne diminue pas.

캠프 난민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아마 마지막 집이 **지어질 때면** 처음 만든 집은 쓸모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Christophe Wargny, 「Haïti entre Dieu et ONG」, Le monde dipolomatique, Janvier, 2011, pp.8-9 / 배영란 역, pp.18-19)

위 두 예문에서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되는 근거지표 상황은 quand 종속절이 나타내는 상황이다. 예문 (135)에서는 *quand il le jugera bon*이 근거지표의 가치를 가져서 언술장면과의 단절을 나타낸다. 예문 (42)에서는 *quand tu reviendras*가 근거지표가 되어 주절의 서술연관관계 *tout ira mieux*의 유효화를 고려한다. 이처럼 단순미래는 미래를 나타내는 근거지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한정작용을 받은 형태

forme-repère로 기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sup>109)</sup>

이 경우에 한국어 번역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은 ‘-르 때’이다.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르-’가 ‘어떤 경우’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 ‘때’와 결합한 형태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거나 전제할 때 사용된다.<sup>110)</sup>

반면 아래 예문과 같이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유승섭(2010)은 이 또한 미래의 일어날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예문 (135)의 ‘판단될 때’를 ‘판단되는 때’로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시제로 옮겨서 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137) - Quand je serai arrivé à rendre parfaitement le tableau que j'ai dans l'imagination, quand ma phrase **aura l'allure** même de cette promenade au trot, une-deux-trois, une-deux-trois, alors le reste sera plus facile et surtout l'illusion sera telle, dès le début, qu'il sera possible de dire : «Chapeau bas!»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장면을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여 나의 문장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말의 발걸음, 그 자체와 딱 들어맞는 보조를 갖추게 되는 때에야 비로소 나머지가 쉬워질 것이고 특히 처음부터 떠오르는 환상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아마도 ‘모자를 벗으시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예문들만 살펴볼 때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르 때’ 혹은 ‘-는 때’는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사용된 quand 조건절의 용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

109) A. Celle(1997)

110) 유승섭(2010). 한국어 시제 어미의 형태적 오류와 교육방안, 국어문학, 48, 301-330.

것으로 보인다.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언술장면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상황절 자체로 근거지표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르 때'의 주절의 서술어가 과거 시제로 쓰인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어 단순미래와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138) 자동차가 충돌할 때 잠자고 있었다.<sup>111)</sup>

위 예문은 미래의 관형사형 어미 '-르 때'가 쓰였지만 '충돌할 때'가 나타내는 가치는 미래 표현의 가치가 아니다. 사건의 단순한 사실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르 때' 표현은 주절의 술어가 과거 시제로 쓰일 때 상황절이 미래의 추측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프랑스어 단순미래가 갖는 근거지표의 가치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주절의 술어가 그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quand절이 함께 쓰인 경우, 단순미래는 미래를 나타내는 근거지표가 된다. 반면 한국어 번역에 나타나는 '-르 때'의 형태는 주절이 그 근거지표로 작용하고 '-르 때'로 표현된 종속절은 주절의 사행을 따른다.

---

111) 유승섭(2010).

## V. 결론

지금까지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의 입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헌에서 발췌한 언술의 관찰을 통해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단순미래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표지가 문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갖는 다양한 지시가치들을 살펴보았다.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에 따르면, 프랑스어의 단순미래는 그 자체가 근거지표로 작용하여 시제적으로 단절을 나타내고 언술행위적 책임지기가 나타난다. 단순미래는 시제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양적인 출현소를 구축하는 동시에 양태작용을 도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의 기존 연구들에서 미래, 추측, 의도, 가능 등의 의미를 갖는 ‘-겠-’과 추측, 의도, 불확실 등의 의미를 갖는 ‘-르것-’을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로 고려해왔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겠-’과 ‘-르것-’이외에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므로 ‘-겠-’과 ‘-르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의 하나이지 시제적 범주에 속하는 미래 시제 표지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한국어 표지는 없지만 ‘-겠-’과 ‘-르것-’이 갖는 ‘불확실성’과 ‘추정’의 가치를 A. Culioli의 언술작용이론의 틀로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비교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언술 분석은 언술의 주어에 따른 분류, 언술의 유형에 따른 분류, 문장 구조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진행했다. 언술의 인칭 유형에 따른 단순미래의 번역에 나타나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칭 주어 je가 쓰인 언술에서 대부분의 경우 단순미래가 ‘-겠-’으로 번역된다. 이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의 주체가 언술행위주체이므로 언술행위주체는 자신의 언술에 대한 책임지기를 나타낼 수 있다. 반면 드물게

‘-르것-’으로의 번역도 나타나는데 이는 언술행위주체의 의지행위와 상관없이 서술연관관계가 유효화되는 사행과 함께 쓰여 미래 출현소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nous가 주어로 나타나는 언술에서는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 모두에게 달려있음으로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에 대한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청유형 종결어미가 사용된 번역문이 나타난다.

둘째, 2인칭 주어가 단순미래와 함께 나타난 언술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언술행위주체가 아닌 공언술행위주체에 달려있다. 프랑스어 단순미래의 경우 언술행위주체가 공언술행위주체를 고려하지 않고 사행의 유효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어 표지 ‘-겠-’과 ‘-르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 상호주체관계가 부각되면서 청유형 혹은 명령형이 나타난다. 모두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할만한 상황적 지표가 언술에 언급되어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에서 표지 ‘-르것-’과 ‘-겠-’이 나타난다.

셋째, 3인칭 주어가 단순미래와 함께 나타난 경우 ‘-르것-’으로의 번역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시제적 지표를 동반하거나 상호주관성이 부재하는 경우 미래를 나타내는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언술에서 ‘-르것-’으로 번역된다. 반면 문맥적으로 상황적 지표가 주어져 화자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언술에서는 ‘-겠-’으로의 번역이 나타난다. 한편, 상태동사와 함께 쓰여 속성부여의 가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현재시제로 번역되었다.

언술 유형에 따른 단순미래의 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소설, 신문기사, 역사서, 법조문, 일기예보에서 예문을 발췌하였다. 신문기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단순미래가 ‘-르것-’으로 번역된다. 이 경우 우세하게 나타나는 가치는 미래 출현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언급할 때 단순미래가 쓰이는 예문들도 살펴보았다. 이 경우 단순미래는 연대추정, 회상, 서술자의 평가적 판단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가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과거 혹은 현재 시제로 번역되었다. 다만 단순미래가 갖는 위의 특징들은 특정 어휘나 문맥을 통해서 약하게 남아있다. 범조문에서 쓰이는 단순미래는 이타성이 강조되고 탈동작성이 나타난다. 이 경우 한국어 번역문에는 ‘-르것-’과 ‘-겠-’이 쓰이지 않고 현재 시제로 번역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에 따른 번역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si절은 언술 행위순간과 인접성이 없는 ‘가정’을 나타내고, 이 경우 대부분의 언술이 ‘-르것-’으로 번역되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프랑스어 단순미래와 quand 절이 함께 쓰인 경우는, 단순미래는 미래를 나타내는 근거지표가 된다. 반면 한국어 번역에 나타나는 ‘-르 때’의 형태는 주절이 근거지표로 작용하고 ‘-르 때’로 표현된 종속절은 주절의 사행을 따른다.

위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표지 ‘-겠-’과 ‘-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어 단순미래는 가상의 근거지표를 내포하여 언술행위 상황에 대한 시제적 단절을 나타내는 반면, 표지 ‘-겠-’과 ‘-르것-’은 그 자체로 근거지표로 작용할 수 없다. 표지 ‘-겠-’과 ‘-르것-’은 시간부사와 같은 시제적 지표를 동반하여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번역문에 프랑스어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표지 ‘-겠-’과 ‘-르것-’이 종속절에 쓰인 경우에 독립적 근거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주절이 시제적 근거지표로 작용하며 주절의 사행을 따른다.

둘째, 프랑스어 단순미래에서 나타나는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표지 ‘-겠-’과 ‘-르것-’이 사용된 언술에도 나타난다. 표지 ‘-겠-’과 ‘-르것-’은 언술행위주체가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상황적 근거 지표를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언술행위주체가 (p, p')의 가치에서 p를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언술행위주체가 자신의 언술에 대한 책임지기를 나타난

다. 한국어 번역문에는 상황적 지표가 부재하거나 서술연관관계의 유효화가 공언술행위주체에 달린 경우 표지 '-겠-'과 '-르것-'으로 번역되지 않고 청유형 어미나 명령형으로 된 표현을 통해 번역되며 이 경우는 언술행위주체가 p의 가치를 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므로 언술행위주체의 책임지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단순미래가 나타내는 양태적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르것-'이 인식론적 양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의무의 양태는 표지 '-겠-'과 '-르것-'이 아닌 청유 혹은 명령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되어 표지 '-겠-'과 '-르것-'은 의무의 양태적 가치는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어 표지 '-겠-'과 '-르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칭 유형, 언술 유형, 문장 구조로 구분 기준을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세 분류 기준은 언술의 작용에 있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 기준들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교재나 광고 등의 좀 더 다양한 유형에서 단순미래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분석 등은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및 논문(한국어)

- 고광모(2002). 「'-겠-'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의 발달」, 『국어학』, 통권 제 39호, pp.27-47.
- 고창운(1991). 「'-겠-'과 '-르것이-'의 용법」, 『건국어문학』, 제15,16합집, pp.595-614.
- 김차균(1981). 「{을}과 {겠}의 의미」, 『한글』, 제173, 174호, pp.65-114.
- 김혜정(1994). “-겠-표현’의 화행론적 분석 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진석(1953). 「미래시상 보간 ‘리’와 ‘겠’의 교체」, 『국어국문학』, 제6권, pp.6-8.
- \_\_\_\_\_ (1971). 『우리말의 때때김 연구』, 과학사.
- 남기심(1972). 「현대 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6·57, pp.213-238
- 박근호(1990). “선어말어미 {-겠-}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빈(1935). 『조선어학』 역대 한국문법 대계 1부 제20책 50 (김민수·고영근 편, 2008), 탐출판사
- 박윤미(1999). “불어조건문 ‘si p, q’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국어학』, 제34집, pp.199-225.

- \_\_\_\_\_ (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정수(1977). 「꺄에 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2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63-87.
- 서정수(1978). 「ㄹ것에 대하여」, 『국어학』 6, 국어학회, pp.85-110.
- 성광수(1984). 「국어의 추정적 표현」, 『한글』, 제184호, pp.53-80.
- 안명철(1983). “현대국어의 양상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안효경(2000). “현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염재일(2005). 「‘-꺄’과 ‘-을 것’의 양태 비교 연구」, 『한국언어정보학회』, 제9권 제2호, pp.1-22.
- 유승섭(2010). 「한국어 시제 어미의 형태적 오류와 교육방안」, 『국어문학』, 제48권, pp.301-330.
- 이기갑(1987). 「미정의 씨끝 ‘-으리-’와 ‘-꺄-’의 역사적 교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161-197.
- 이기용(1978). 「언어와 추정」, 『국어학』, 제6집, pp.29-64.
- 이남순(1981).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88). “국어의 格標識 생략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5). 「꺄’과 ‘ㄹ것’의 판단론」, 『대동문화』, 30, pp.375-390
- 이병기(1997). 「미래 시제 형태의 통시적 연구: ‘-리-’, ‘-ㄹ것이-’, ‘-꺄-’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제146호, 국어연구회.

- \_\_\_\_\_ (2005). 「'-겠-'과 '-었-'의 통합에 대하여」, 『국어학』, 제47권, 국어학회, pp.179-206.
- 이선경(1994). 「펠리올리의 좌표결정작용 이론」, 이정 외 6인.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p.159-214
- \_\_\_\_\_ (2001). 「양상madalité에 대하여」, 『프랑스학 연구』, 제 21권, 프랑스 학회, pp.273-294.
- \_\_\_\_\_ (2011). 「표지 aller+infinitif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 연구』, 제 58집, 프랑스 학회, pp.251-284.
- \_\_\_\_\_ (2013). 「표지 단순미래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 연구』, 제 66집, 프랑스 학회, pp.215-284.
- \_\_\_\_\_ (2014). 「언술행위 연산작용으로 본 표지 '-겠-'」, 『프랑스문화예술 연구』, 제 50집, pp.183-216.
- 이화영(2007). 「현재분사, 동사적 형용사, 제롱디프 비교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제72권, 한국불어불문학회, pp.257-279.
-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제37권, 국어학회, pp.115-147.
- 임홍빈(1980). 「{-겠-}과 대상성」, 『한글』, 제 170호, 한글학회, pp.148-190.
- 장경희(1984). 「{겠}과 인과법칙」 『어학』, 제11권, 전화대학교 어학연구소, pp.83-101.
- \_\_\_\_\_ (1985). “국어의 인지양태”, 동아시아 문화연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523-534.
- 정인아(2009). 「'-겠-'의 ‘현장 지각 판단’ 의미에 관한 연구 -‘단언’의 ‘-을 것이-’와 비교 및 이미지를 활용한 교수법 제안-」, 『한국언어문화교

육학회 제10차 전국학술대회』, pp.243-257.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최수정(2014). “종결어미 {-지}의 양태 의미 및 맥락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진(2012). “한국어 선어말 어미의 시제성과 양태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홍기문(1947). 『조선문법연구』, 서울신문사.

## 2. 단행본 및 논문 (프랑스어)

Álvarez Castro, C.(2007). « Interprétation du futur de l'indicatif et représentation d'événements futurs », in L. de saussure, J. Moeschler & G. Puskas (éds.), *Etudes sémantiques et pragmatiques sur le temps, l'aspect et la modalité*, Amsterdam, New York, Rodopi, pp.7-24.

Barceló, G.(2007) « Le(s) futur(s) dans les langues romanes: évolution linéaire ou cyclique? », *Cahiers Chrono* 16, pp.47-62.

Barceló, G. J. & Bres J.(2006). *Les temps de l'indicatif en français*, Paris, Ophry.

Benveniste, E.(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ome 1, 2, Paris, Gallimard.

Borillo, A.(2005). « Parmi les valeurs énonciatives du futur, le futur conjectural », in F. Lambert & H. Nolke (éds), *La syntaxe au coeur de la grammaire*,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pp.35-44.

- Boudin, P.(2000). « A propos des “futurs” ventifs et itifs : Remarque sur un paradox », Nancy, *Verbum*, 3, pp.293-311.
- Caudal, P. & Vettters, C.(2005). « Un traitement conjoint du conditionnel, du futur et de l'imparfait: les temps comme des fonctions d'acte de langage », *Cahiers Chronos* 12, pp.109-124.
- Celle, A.(1997). *Etude contrastive du futur français et de ses réalisations en anglais, Linguistique contrastive et traduction n°spécial*, Paris, Ophrys.
- Clédat, L.(1906). « Études de syntaxe française : L'Antérieur au futur », *Revue de philologie française et de littérature*, tome 20, 265-282.
- \_\_\_\_\_ (1927). « Encore le futur antérieur », *Romania*, tome 53, pp.218-222.
- \_\_\_\_\_ (1928). « De l'alternance du présent historique et du futur » in « Mélanges » in *Revue de philologie française et de littérature*, tome 40, pp. 140-143.
- Clédat, L & Yvon, H.(1923). « A propos du futur antérieur », *Revue de philologie française et de littérature*, tome 35, Clédat, pp.1-21.
- Clédat, L. & Yvon, H.(1928). « Encore le futur antérieur », *Revue de philologie française et de littérature*, tome 40, pp.17-30.
- Culioli, A.(1973). « Sur quelques contradictions en linguistique », *Communication* 20, pp.83-91.
- \_\_\_\_\_ (1978a). « Valeurs aspectuelles et opérations énonciatives : l'Aoristique », MARTIN, R. & DAVID, J. (éds.), *La notion d'aspect*,

- Actes du colloque organisé par le Centre d'Analyse Syntaxique de l'Université de Metz, 18-20 mai 1978, pp.181-193.
- \_\_\_\_\_ (1978b). « Valeurs modals et opérations énonciatives », *Modèles linguistiques* Tome 1, fascicule 2, Paris, PUF, pp.135-155.
- \_\_\_\_\_ (1985). *Notes du séminaire de DEA* (1983-1984), Paris VII, Poitiers: DRL.
- \_\_\_\_\_ (1990). *Pour une linguistique de l'énonciation* 1, 2, 3. Paris, Gap: Ophrys.
- \_\_\_\_\_ (1993). « Les modalités d'expression de la temporalité sont-elles révélatrices de spécificités culturelles? » in *Interface* n°5 : *Le Temps - Lettres et Langues vivantes*. Paris : Publication du CRDP, pp.8-24
- Dauzat, A.(1942). « A l'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 », *Le Français moderne*. tome 10, pp.254-254.
- Delmas, C.(1998). « Futurité: temps et strates en anglais », in A. Borillo, *Variations sur la référence verbale*, Rodopi, pp.163-175.
- Franckel, J.-J.(1981). « Modalités et opérations de détermination ». *BULAG* 8, Université de Besançon.
- \_\_\_\_\_ (1984). « Futur simple et futur proche ». *Le français dans le monde* 182, pp.65-70.
- \_\_\_\_\_ (1989). *Etude de quelques marqueurs aspectuels du français*, Paris, Genève : Droz.
- Franckel, J.-J., Paillard, D., Saunier, E.(1997). « Modes de régulation de la variation sémantique d'une unité lexicale. Le cas du verbe Passer

- », in vol. *La locution: entre lexique, syntaxe et pragmatique*, coll. St-Cloud, publication de l'INALF, Paris: Klincksieck, pp.49-68.
- Fries, C.(1927). « The expression of the future », *Language* 3, pp.87-95.
- Fuchs, C.(1977). « Système verbal et opérations d'énonciation », *Français dans le monde*, n° 129, pp.35-40.
- Giancarli, P.-D.(2003). « Futur simple français «je dirai» et ses traductions en anglais: étude contrastive », in J. Chuquet (éd), *Verbes de parole, de pensée, de perception: études syntaxiques et sémantiques*, MSHS-Université de Poitiers :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 pp.55-74.
- Gobert, David L. & Maisier, V.(1995). « Valeurs modales du futur et du conditionnel et leur emplois en français contemporain », *French Review*, vol. 68, n°6, pp.1003-1013.
- Grévisse, M.(1936). *Le bon usage*. Editions Duculot. 12ème édition refondue par A. Goosse, Paris-Gembloux 1986, réimp. 1988
- Guillaume, G.(1951). « La représentation du temps dans la langue française » in *Le Français moderne*, tome 19, pp.29-41 et pp.115-133.
- Helland, H. P.(1995). « Futur simple et futur périphrastique: du sens aux emplois », *Revue Romane*, 30, pp.3-26.
- Imbs, P.(1960). *L'emploi des temps verbaux en français moderne: essai d'une grammaire descriptive*. Paris: Librairie Klincksieck.
- Labeau, E.(2005). « Des "Temps moderne": L'aspect suffit-il à la maîtrise des temps du passé dans les narrations écrites d'apprenants

- avancés? », *Cahier Chronos* 12, pp.203-218.
- Larreya, P.(2005). « Sur les emplois de la périphrase aller+infinitif », in N. Le Querler & H. Bat-Zeev Shyldkrot (éds), *Les périphrases verbales*, Amsterdam / Philadelphia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337-360.
- Laurendeau, P.(2000). « L'alternance futur simple / futur périphrastique: une hypothèse modale », *Verbum* n°22, 3, Nancy: Presses Universitaires de Nancy, pp.277-292.
- Lopez Alonso, C. Sere de Olmos, A.(1992). *Où en est la linguistique? entretiens avec des linguistes* (Antoine CULIOLI), Collection LINGUISTIQUE n° 23, Didier érudition, Paris, pp.25-57.
- Maingueneau, D.(1994). *L'énonciation*, Hachette.
- Marschall, G. R.(1999). « Pas d'avenir pour le futur? À propos du futur allemand », in S. Vogeleer, A. Borillo, M. Vuillaume & C. Vettes (éds), *La modalité sous tous ses aspects*, Amsterdam, Atlante : Rodopi, pp.77-92.
- Martin, R.(1981). « Le futur linguistique: temps linéaire ou temp ramifié? » in *Langages*, 15e année, 64, pp.81-92.
- Revas, F.(2002). « Le présent et le futur «historique»: des intrus parmi les temps du passé », *Le français aujourd'hui*, n°139, pp.87-96.
- \_\_\_\_\_ (2009). « Valeurs et emplois du futur simple et du présent prospectif en français », *Faits de langue, Le futur, Revue de linguistique* n°33, Ophrys, pp.149-162.
- Rostaing, C.(1944). « L'emploi d'aller devant l'infinitif », *Le Français*

- moderne*. tome 12, pp.173-175.
- Saburô, A. & Tamba, I.(2000). « Avenir, anticipation et catégorie linguistique du futur », *Scolia* n°12, pp.25-37.
- Schäfer-Prierb, B.(2001). « Le futur de probabilité », *Revue de Sémantique et Pragmatique*, 9/10, pp.9-17.
- Schrott, A.(2001). « Le futur périphrastique et l'allure extraordinaire », *Cahiers chronos* 8, pp.159-170.
- Stage, L.(2002). « Les modalités épistémique et déontique dans les énoncés au futur (simple et composé) », *Revue Romane* 37, pp.44-66.
- \_\_\_\_\_ (2003). « Les valeurs modales du futur et du présent », in M. Birkelund, G. Boysen & P. S. Kjærsgaard, *Aspects de la Modalité*, Walter de Gruyter, pp.203-208.
- Stavinohová, Z.(1977). « Le futur "proche" et le futur simple dans la langue littéraire contemporaine », *Études romanes de Brno*, vol.210, pp.115-126.
- Sundell, Lars-Göran.(1991). *Le temps futur en français moderne*, Stockholm : Uppsala.
- Vet, C.(1985). « Univers de discours et univers d'énonciation: les temps du passé et du futur », in *Langue française* n°67: « La pragmatique des temps verbaux ».
- Vet, C. & Kampers-Manhe, B.(2001). « Futur simple et futur du passé: leurs emplois temporels et modaux », in P. Dendale & L. Tasmowski (ed.),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Paris, Klincksieck,

pp.89-104.

de Vogüé, S.(1993). « Des temps et des modes », *Le Gré des Langues* n° 6, L'Harmattan, pp.65-91.

\_\_\_\_\_ (1995). « L'effet aoristique », in Bouscaren, J., Franckel, J.J. & Robert, S., *Langues et langage. Problèmes et raisonnement en linguistique*, PUF, pp.247-259.

\_\_\_\_\_ (1997). « Identité lexicale et hétérogénéité de la variation co-textuelle », in Claude Guimier, *Co-texte et calcul du sens*,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pp.41-61.

\_\_\_\_\_ (1999) « Ni temps, ni mode : le système flexionnel du verbe en français » in S. Vogeleer, A. Borillo, M. Vuillaume & C. Vettiers (eds), *Cahiers Chronos 4, La modalité sous tous ses aspects*. Amsterdam : Rodopi, pp.93-114.

\_\_\_\_\_ (2006). « Qu'est-ce qu'un verbe? » in Lebaud, D., Paulin, C. & Ploog, K., eds, *Constructions verbales & production de sens*, Presse universitaires de Franche-Comité, Besançon, pp.43-62.

Weinrich, H. (1964). *Tempus*.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GmbH.  
Trad. Michèle Lacoste: *le temps*. Paris: Editions du Seuil, 1973.

3. 예문 발췌 문헌(원서, 번역서)

Camus, A.(1947). *La Peste*, Gallimard.

김화영 역(2009). 『페스트』, 책세상

Duras, M.(1984). *L'amant*, Editions de Minuit

김인환 역(2007). 『연인』, 민음사

Georges Duby(1976). *Histoire de la civilisation française*, XVIIIe-XXe siècle, Colin.

김현일 역(1995). 『프랑스 문명사』 17세기-20세기, 까치.

Georges Duby(1985). *Le dimanche de Bouvine*, Gallimard.

최생열 역(2002). 『부빈의 일요일』, 동문선

LA COMMISS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RAPPORT D'INFORMATION dépos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5 du Règlement sur les modifications apportées par le traité de Lisbonne au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et au traité instituant la Communauté européenne).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rap-info/i0439.asp>

채영복(2010). 『리스본 조약』,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Le Monde Diplomatique. Octobre, 2010 - Février, 2011.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년 10월 - 2011년 2월

Les Echos, 16-18 Août 2014

중앙일보, 2015년 5월 1일 금요일

# Résumé

## Etude Contrastive du Futur Simple en Français et de ses Réalisation en Coréen

Jina Lee

Départ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de Sungshin

Le présent mémoire est une étude contrastive sur le futur simple en français et ses réalisations variées en coréen. La disparité entre les deux langues vient du fait que le futur en français est un temps de l'indicatif du point de vue morphologique, alors qu'en coréen, il n'existe pas le futur comme temps de l'indicatif. Le futur en français marque un décrochage temporel et une prise en charge énonciative. En revanche, dans le cas du coréen, la valeur temporel de futur étant exprimée par les marqueurs '-kess-' et '-l kes-', la référence à l'avenir s'effectue par le biais de la modalité. Donc, il n'y a pas de correspondance réelle entre le futur français et les marqueurs coréens.

Dans le cadre de la théorie des opérations énonciatives qui a été élaborée par A. Culioli, notre travail a pour objectif la description des fonctions et des valeurs du futur simple et des marqueurs coréens correspondants, à travers l'analyse des corpus bilingues comportant des énoncés français et ses traductions en coréen. Nous avons tenté de déterminer les opérations énonciatives sous-jacents des différents

marqueurs du renvoi à l'avenir dans les deux langues. Notre corpus est extrait de textes variés ; des ouvrages littéraires, la presse, des textes historiques et juridiques, des bulletins météo.

Notre analyse des corpus est effectuée ; 1. en fonction du sujet de l'énoncé, 2. en fonction du type de l'énoncé, 3. en fonction du schème syntaxique de la phrase. Cette analyse nous a amené aux conclusions suivantes :

Premièrement, les marqueurs '-kess-' et '-l kes-' ne fonctionnent pas comme formes repérées, alors que le futur proche, pourvue d'une fonction de repère indépendante, établit une rupture temporelle par rapport à la situation d'énonciation,

Deuxièmement, les marqueurs '-kess-' et '-l kes-' implique une prise en charge énonciative où permet de sélectionner une valeur et une seule dans (p, p').

Dernièrement, la modalité épistémique peut apparaître par le marqueur '-l kes-'. D'ailleurs, la modalité déontique ne peut pas s'exercer par les marqueurs '-kess-' et '-l kes-', mais par le marqueur impératif.